

李 대통령 “경찰 권한 커진 만큼 책임도 커져”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 열린 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선영 기자 p. 5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 우리금융
1년간 총 34조7000억원 달성

/허필숙 기자 p. 12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현안 소통…
“자기주도학습센터로 교육격차 해소”

경찰의 날 기념식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책임성 강조
국가경찰위원회 역할 강화·독립적 수사 점검 장치 마련 주문
공소청·중수청 협력 통한 수사 공백 방지·피해자 보호 당부

신현승 기자 dtpress25@gmail.com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70여년간 유지돼 온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한 만큼, 경찰의 책임도 더 커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바로잡는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최근 벌어진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로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이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야 한다”며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뼈를 깎는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소수의 일탈과 부당한 대응이 전체 조직의 신뢰와 평판을 깎아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한다”며 “잘못이 드러났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커진 수사 권한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확립해 주길 바란다”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장치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또 “범죄피해자 보호를 경찰 수사의 중요한 원칙으로 확고히 세우고 여성과 장애인, 아동 등 ‘안전 약자’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안에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 우려와 관련해서는 “공소청·중수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도 빈틈없이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 범죄는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대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실종 사건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재난 현장에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전세 사기와 투자사기,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는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불법 수익을 끝까지 환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AI 기반 차세대 112 시스템’ 구축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수사역량 확대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국민을 지키는 민주 경찰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며 “정부도 경찰관 여러분의 헌신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생생형 AI 제미니의 답변을 공개하며 공소청장·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비판을 반박했다.

관련기사 p2



李 “공소청·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특별취급 말아야”…제미나이 답변 공개

X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 게시…정부조직법 제11조 근거 제시

“산림청장·소방청장처럼 중수청·공소청도 청장의 하나일 뿐”

김지용 중수청장 20일 국무회의 첫 참석…독립성 우려는 여전

신현승 기자 dtpress25@gmail.com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생생형 AI ‘제미나이’의 답변을 공개하며 공소청장·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야권 등의 비판에 정면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제미나이의 답변에는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것으로,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험적 억지”라며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조직법 제11조는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답변에는 또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국무회의에 배석해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게 헌법적 책임 정지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이를 막는 것은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처리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답변을 소개한 뒤 별도의 글에서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회의에 참석해서 논의를 한다. 중수청과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

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권한 기관을 특별 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상의 정상화”라며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중수청장·공소청장을 참석시킨다고 해서 검사들이 복종하지도, 충성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글에도 답글을 달았다.

이 대통령은 “검사는 대통령에게 충성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으며, 그래서 안 된다”며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충성하며 공명정대하게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업무의 독립성만큼 민주적 통제도 중요하고 국정 방향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행정 권한의 악용이나 남용을 막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나 수사관들의 정치화를 막고 다시는 국가기관들이 사익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개정한 중수청은 6일 열린 첫 국무회의에 청장 직무대행이 배석했다. 16일 첫 출근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은 전날인 20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수사기관 수장이 정례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할 경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찰의 날 기념사에서 “커진 수사 권한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확립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조희대 탄핵론 확산에 국정조사 카드까지

국감 종료 후 국정조사 논의 본격화 탄핵 근거 확보 추진

당내 강경론·신중론 대립…조국혁신당도 탄핵소추 촉구

신현수 기자 shs5280@naver.com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화한 데 이어 국정조사 실시까지 검토하면서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당내에서 탄핵의 실효성과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강경파는 조속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어 민주당 지도부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21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이후 탄핵의 구체적 근거들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국정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조사가 탄핵소추를 위한 사전 절차인지에 대해서는 탄핵 근거를 국민에게 알리고 여론을

형성하는 차원에서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달 말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국정조사 실시 여부와 추진 일정 등을 놓고 당내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 종료된다는 점에서 탄핵소추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과 정치적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반면 강경파는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사법부 운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신속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책임지지 않는 사법부 수장을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나”라며 누적된 법률 위반 의혹을 면밀히 검토해 탄핵소추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최고위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탄핵 신중론을 존중하지만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 역시 탄핵 추진을 압박하고 있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 자체적으로 작성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전달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탄핵을 촉구하는 진전을 보냈다.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가 탄핵 추진의 명분을 확보하는 동시에 당내 이견을 조율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국정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조 대법원장 임기 종료 이전에 탄핵 절차까지 마무리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 문제도 변수로 꼽힌다. 특검팀이 대법원에 직권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가운데 김 여사가 석방될 경우 여권 강경파의 탄핵 요구가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 근거를 확보할지, 당내 신중론을 고려해 다른 대응 방식을 선택할지에 따라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정동혁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권,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에 반발

국민의힘 “수사기관 폭두각시 만드는 시도” 정치적 중립성 우려

역대 정부의 수사기관장 불참 관행 지적…국무회의 배석 철회 촉구

대통령의 생생형 AI 법률 해석 활용에도 “국정 정당성 근거 될 수 없어”

나경원·한동훈 가세…“수사기관 독립성 지키고 권력 개입 차단해야”

신현수 기자 shs5280@naver.com

야권이 21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수사기관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청장이 임명장을 받은 직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을 놓고 대통령의 수사기관 통제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종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외치더니 임명장 인크로 마르기 전에 수사 수장부터 국무회의에 불러 앉혔다”며 “수

사 독립을 흔들고 수사기관을 폭두각시로 만들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역대 정부가 유지해 온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불참 관행이 깨졌다고 주장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단체 참여연대도 수사기관장의 정례적인 국무회의 참석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며 정부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생생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를 활용해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위한 이 아니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도 논란이 됐다.

한전KDN, 지속가능경영보고서 10주년 특별판 발간

지난 10년간의 ESG 여정과 미래 비전 수록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필수 68개 항목 충족

박선영 기자 dtodaynt@gmail.com

한전KDN이 지난 10년간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여정과 미래 전략을 담은 ‘2026년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10주년 특별판’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판은 ‘연결에서 전환으로, 다시 미래로’라는 부제로 한전KDN이 걸어온 지속가능경영 발자취와 시대별 ESG 중대 이슈 변화 과정을 조명했다.

한전 KDN은 그동안 축적된 성과를 분석해 기관의 ESG 경영 성숙도를 점검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국전력과 나주시 등 주요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수록해 상생 협력의 의미를 더했으며, 전력 설비에 대한 디지털 전환(DX)과 인공지능 전환(AI), 에너지 ICT 신사업 등 핵심 사업과 ESG 경영 추진체계를 함께 다뤘다.

특히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필수 68개 항목을 모두 충족해 공시하면서 정보 공시 투명성과 신뢰성도 높였다.

또한 친환경 가치 제고를 위해 온라인에 최적화된 PDF 형태로 제작했다.

‘2026년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10주년 특별판’은 공식 누리집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전KDN은 이번 발간을 바탕으로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LACP) 어워즈 5년 연속 수상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전KDN 관계자는 “이번 10주년 보고서 발간은 지나온 10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미래 10

년을 준비하는 뜻깊은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정부 정책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한전, 전남·광주 에너지 스타트업 공동 육성 본격화

전남광주 동반성장협의회 출범 협약
총 3억9000만원 투입해 성장 지원
6개 에너지 공공·연구기관 역량 결집
창업부터 실증·시장 진출까지 제공

박선영 기자 dtodaynt@gmail.com

한국전력이 전남·광주 지역 에너지 스타트업 공동 육성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전력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열린 ‘전남광주지역 동반성장협의회’ 출범 협약식에 참여했다.

이번 협의체는 공공기관과 지방정부의 지원을 연계해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상생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전은 이날 ‘전남광주 에너지 스타트업 공동 육성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지역 공공기관 및 연구·지원기관과 함께 유망 기업 발굴부터 사업화, 실증, 시장 진출까지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에 있거나 특구 이전을 희망하는 창업 10년 이내 에너지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다.



지난 20일 열린 전남광주지역 동반성장협의회 협약식에서 (왼쪽부터) 최승범 기아 상무, 문일주 한전 기술혁신본부장, 강영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업경제부시장, 장인화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박상형 한전 KDN 사장, 김찬호 CJ제일제당 대표, 김중현 우이한형제를 전수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전은 유망 스타트업 총 3곳을 선정해 약 3억 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는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전 KPS, 전남테크노파크, 녹색에너지연구원, 에너지벨리산학융합원 등 6개 기관이 참여한다.

각 기관은 전문 역량을 활용해 제품 상용화, 전문 인력 확보, 투자 연계, 국내외 현장 실증(PoC) 및 수출 현지화, 전력 ICT·인공지능(AI) 실증, 공동 연구 개발(R&D), 지식재산권 확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규제 개선

등 행정 지원을 맡고, 동반성장위원회는 기관 간 협력과 정책 연계를 조율한다.

한전은 오는 12월 사업 종료 후 성과와 참여기관 의견을 분석해 지원 체계와 후속 사업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 출범은 유망 스타트업들이 지역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수원, 타지키스탄 최초 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 준공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태양광 3MW·ESS 0.5MWh 구축

전력난 겪던 수그·고르노바다산 지역 생활 여건 개선 기대

박선영 기자 dtodaynt@gmail.com

한국수력원자력이 참여한 타지키스탄 태양광 발전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준공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한민국 정부의 ODA 재원을 바탕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전담한 에너지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타지키스탄 수그와 고르노바다산 지역에 각각 3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과 0.5메가와트시(MWh)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가 들어섰다.

수그와 고르노바다산 지역은 극심한 전력난을

겪어왔던 곳으로, 설비 준공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메가와트급 발전시설이 타지키스탄에 들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가 전체 전력 공급에 기여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마련했다.

한수원은 참여기관으로서 국내의 사업을 통해 쌓은 기술력과 관리 역량으로 사업 수행을 지원했다.

특히 국산 태양광 모듈 등 국내 기자재를 적용해 신뢰성을 확보했으며, 운영 데이터는 국내 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해외 진출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지 정부 및 에너지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도 확보했다.



한수원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타지키스탄 최초 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했다. 사진=한국수력원자력

공영근 한국수력원자력 수소융합추진장은 “이번 사업은 현지 전력공급 여건 개선에 기여하는 동시에 한국과 타지키스탄 간 에너지 협력의 기반을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이번 사업에서 축적한 경험과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태양광과 수력 등 후속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한수원, ‘사랑온 안심밥차’ 올해 마지막 나눔

경주 시민운동장 앞 광장서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무료급식

산불 등 재난 현장 지원 및 복지 소외지역 중심 연 10회 운영

박선영 기자 dtodaynt@gmail.com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주 시민운동장 앞 광장에서 올해 마지막 ‘사랑온(ON) 안심밥차’ 무료급식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일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 기탁한 이동식 급식차량을 활용해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다.

‘사랑온 안심밥차’는 평상시 경주 지역 취약계층과 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이재민과 현장 대응 인력의 식사를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지난 2025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한수원은 교통이 불편하거나 복지 혜택이 닿기 어려운 지역을 위주로 정기 봉사를 이어오며 식사 부담을 덜고 주민 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왔다.

특히 올해 초에는 경주시 문무대왕면 산불 피해 현장에 급식차량을 긴급 투입해 현장 지원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이날 활동을 끝으로 한수원은 올해 계획한 총 10회의 안심밥차 봉사활동을 모두 마쳤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올 한 해 안심밥차 활동에 함께해 준 자원봉사자들과 관계자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좋은 에너지, 더 좋은 세상

한국가스공사가 수소도 만듭니다

수소 생산기지
전국 총 25개소 구축

수소 연료전지
500MW 발전소 건설

수소 충전소
전국 총 132개소 구축

해의 그린수소 도입
2040년까지 총 121만 톤 수입

수소 핵심기술 확보
총 1,600억원 투자

Everywhere Green Life.

H2 KOGAS

‘한국형 하이패스’ 해외로…한국도로공사, 말레이시아에 다차로 무정차 톨링 지원

말레이 고속도로청과 ‘스마트 고속도로’ 업무협약 체결
강릉 ITS 세계총회 계기로 도로·교통 분야 전반 협력
향후 5년간 스마트 교통관리·자산관리·기술이전 등 추진

이승준 기자 report0330@gmail.com

한국도로공사가 말레이시아 고속도로청과 ‘도로·교통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일 강릉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강릉 ITS 세계총회’를 계기로 말레이시아 고속도로청과 실무 협력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와 말레이시아 공사사업부가 맺은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말레이시아 고속도로청은 공공사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유료고속도로 정책 수립과 민자 운영사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양 기관은 향후 5년간 스마트 고속도로 관리 및 개발, 첨단 톨링 정책과 제도, 스마트 교통관리센터 및 지능형 교통체계(ITS), 고속도로 인프라 개발과 자산관리, 역량 강화 및 기술이전 교육훈련 등의 분야에서 협력한다.

특히 말레이시아가 전국 유료고속도로에 도입을 추진 중인 다차로 무정차 톨링 시스템(MLFF) 사업

▶ 지난 20일 강릉 컨벤션센터에서 유정훈 한국도로공사 사장(왼쪽)과 모하마드 하즈미르 말레이시아 고속도로청(MLM) 청장(오른쪽)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도로공사



에 한국도로공사의 무정차 통행료 수납 기술과 경험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MLFF는 차로 구분 시설물 없이 여러 차로에서 정차 없이 통행료를 내는 시스템으로 한국의 다차로 하이패스와 같다.

한국도로공사는 2007년 하이패스 전국 개통 이후 중간 요금소 정차 없이 한 번에 정산하는 원톨링 시스템과 다차로 하이패스를 도입해 수납 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현재 고속도로 이용자의 약 94%가 하이패스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 알마티 순환도로의 다차로 무정차 톨링 시스템 운영을 비롯해 방글라데시 파드마 대교와 N8 고속도로의 무선인식(RFID) 기반 전자 지불 시스템 구축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유정훈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양 기관의 신뢰를 굳건히 하고 미래형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공사의 첨단 기술과 축적된 경험이 말레이시아 스마트 고속도로 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부발전, 대전 산단에 태양광 설비 구축…발전 수익 지역 환원

대전시·에너지기술연구원 등과 에너지자급자족 사업 업무협약

13MW급 태양광 설치 및 고효율 설비 지원…통합 플랫폼 구축

특수목적법인 설립해 20년간 운영…수익금은 전기료 절감에 재투자

박선영 기자 dtodaynt@gmail.com

한국서부발전이 대전 산업단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입주기업 전기요금 부담 경감과 발전 수익 지역 환원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서부발전은 지난 20일 대전복합문화센터에서 대전광역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지역본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 전문 시공기업 등과 ‘대전 산업단지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운영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부발전은 지난 7월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를 이어왔으며, 최근 사업내용을 확정함에 따라 오는 2029년까지 누적 기준 약 5723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사업을 통해 산단 내 공장 지붕 등에 13메가와트(MW) 이상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가 들어서며, 20곳 이상의 입주기업 노후 설비는 고효율 기기로 교체된다.

또 에너지 생산량과 사용량을 실시간 점검할 수 있는 통합 관리 플랫폼도 구축돼 기업의 전력 관리

를 돕는다.

서부발전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주도해 준공 후 약 20년간 설비를 운영·관리할 계획이다. 발전 수익 일부는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입주기업 전기요금 절감 사업에 재투자한다.

서부발전은 지난 2023년부터 전북 군산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사업을 맡아 11.69MW 규모의 지붕 태양광 설비를 구축한 바 있다. 군산 산단에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한 전기차 충전소 및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 ‘메가스태이션’도 마련했다.

이정복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군산 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사업에서 얻은 경험을 대전에도 적용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입주기업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겠다”며 “발전설비 설치를 넘어 운영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재투자해 기업과 주민 모두에게 보탬이 되는 사업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력거래소,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재생에너지 100GW·메가프로젝트 추진

박선영 기자 dtodaynt@gmail.com

전력거래소가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함께 재생에너지 100GW 달성과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추진 등 핵심 국정과제와 관련해 지역 시민사회와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20일 나주 본사에서 광주 시민단체협의회와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1998년 결성돼 현재 27개 회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전남·광주 지역 대표 시민단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가 핵심 전력시설인 중앙전력관제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고 둘러보는 시간을 통해 전력계통과 전력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어 재생에너지 100GW 시대 견인과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신속 이행을 위한 현안 과제

를 논의했다.

특히 김성진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직접 간담회에 참석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메가프로젝트에 관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전력거래소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에 집중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확대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성진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출범과 더불어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는 국가 전력·에너지 산업의 중추인 전력거래소에도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100GW와 메가프로젝트 등 핵심 현안이 집중된 전남·광주 지역 시민사회와 지속해서 소통해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력거래소, ‘전력시장 K-뉴딜 아카데미’ 개설

전국 공공기관 중 유일 참여

실무자 직강 및 AI 역량 강화

NCS·면접 등 취업 과정 지원

박선영 기자 dtodaynt@gmail.com

전력거래소가 미취업 청년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K-뉴딜 아카데미’에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참여해 ‘전력시장 디지털 인재 아카데미’ 교육을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20일 입교식을 열고 선발된 교육생 30명을 대상으로 오는 2027년 1월 13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총 400시간 과정의 교육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K-뉴딜 아카데미’는 미취업 청년 1만명 규모를 대상으로 기업이 주도해 직무 역량 강화와 자신감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삼성, SK, LG,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이 참여하는 가운데 공공기관으로는 전력거래소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이번 교육은 전력시장, 전력계통, 수급계획 등 기관 주요 직무에 대한 실무자 직강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공공행정 및 직무 실무 과정으로 구성됐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실천, 모의면접 집중과정, 멘토링, 진로상담, 전력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실질적인 취업 역량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교육 장소는 전력거래소 본사 교육원 강의실과 광주 교육장에 마련돼 실무자와의 직접 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김성진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청년 취업 지원과 전력 분야 인재 양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청년 고용률 제고에 도움이 되고 청년들이 미래 전력산업 분야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안
내
광
고

일간투데이

전국 중앙 일간지로서 모든 법정공고를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문의 및 접수처

TEL.: 02)776-1726~7
FAX: 02)754-7244
E-mail: fbrius@hanmailnet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2차)

본 회사는 2026년 10월 2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이 공고게제 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하나미민재임차 유한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청산인 한상훈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2차)

당 회사는 2026년 10월 2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26년 10월 20일자로 해산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당 회사에 채권이 있으신 분은 본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에이투동산제조자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2길 24(여의도동)
청산인 김세현

당신을 지키는
‘히어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제 사용을
일상화 합시다.

공익광고협의회

생산 넘어 포용금융까지…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1년간 34조7000억원 달성

5개년 목표 90조원 중 38.5% 공급…융자 부문 목표 초과

사회망홀씨 등 서민금융 확대 및 연체채권 2800억원 소각

박선영 기자 dtodaynt@gmail.com

우리금융그룹이 생산적·포용금융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총 34조7000억원을 공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우리금융은 지난 20일 본사에서 임종룡 회장 주재로 주요 계열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첨단전략산업 금융협의회'를 열고 1년간의 추진 성과와 내년도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해 9월 금융권 최초로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가동한 우리금융은 지난 6월 목표치를 상향해 5년간 총 9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프로젝트 도입 후 1년 동안 생산적 금융 33조3000억원, 포용금융 1조4000억원 등 총 34조7000억원을 집행해 5개년 목표의 38.5%를 달성했다.

생산적 금융 융자 부문은 9월까지 27조2000억원을 기록해 연간 목표 18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우리은행 공급액 26조6000억원 중 13조4000억원이 중소기업에 전달됐으며 이 가운데 5조1000억원은 지방 중소기업에 배정됐다.

투자 부문도 9월까지 1조9000억원을 집행했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신안우이 해상풍력과 평택 반도체 시설 등에 5000억원 이상을 집행했고, 우리투

자증권은 모험자본 4661억원을 투입했다.

이달에는 비수도권 인공지능(AI) 센터를 대상으로 계열사 공동 모험자본 투자도 진행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계열사가 협력해 최적의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고 사업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한 모범 사례"라며 "이런 지원을 꾸준히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포용금융 부문은 9월까지 2조8000억원을 집행했다. 우리은행 사회망홀씨 대출은 은행권 최대인 6520억원을 지원했으며, 지난 3월 출시한 '우리 WON Dream 생활비대출'은 오는 11월 판매 한도를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린다.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대출 4351억원 공급과 함께 우리은행·우리카드의 장기연체채권 2800억원 소각으로 1만2000여명의 신용 회복을 지원했다.

우리금융은 내년도 중소기업과 지방 기업 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연체채권 소각과 복지 연계를 결합해 취약계층의 실질적 재기를 도울 방침이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1년이 자금을 적시에 공급하는 데 집중한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중소기업과 지역 비중 등 공급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진정성을 갖고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금융 공급을 지속해서 늘려가자"고 당부했다.

삼성자산운용 ETF 순자산 2000억원 돌파

‘전고체·ESS’ 미래 성장에 투자자 몰려

상장 4개월 만에 관련 ETF 수익률 1위

한지연 기자 report0330@gmail.com

삼성자산운용은 'KODEX 전고체배터리ESS TOP2플러스' 상장지수펀드(ETF)가 순자산 2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6월 23일 상장한 뒤 4개월 만에 달성한 성과로, 지난 20일 마감 기준 순자산은 237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성과는 개인투자자들의 꾸준한 자금 유입이 이끌었다. 상장 이후 개인투자자 누적 순매수액은 754억원이며, 최근 한 달 동안에만 약 233억원이 유입됐다.

수익률 측면에서도 최근 1개월 11.99%, 3개월 34.98%를 기록해 국내 상장 ETF 중 상위권에 올랐다. 상장 이후 누적 수익률은 6.88%로 국내 상장 2차전지 및 소재 관련 ETF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국내 ESS 기업들의 수주 확대와 전고체배터리 상용화 기대가 맞물린 점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KODEX 전고체배터리ESS TOP2플러스는 배터리

산업의 두 핵심 성장축인 전고체배터리와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동시 투자하는 상품이다. 전고체배터리와 ESS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휴머노이드 로봇, 도심항공교통(UAM), 우주항공 등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해당 ETF는 두 분야를 이끄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에 약 50%를 집중 투자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내 ESS 생산 거점을 가동하며 북미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 삼성SDI는 4분기 리튬인산철(LFP) 기반 ESS 신제품 출시와 전고체배터리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

나머지 절반은 상신이디피, 서진시스템, 한중엔시에스, SFA네슬 등 ESS 밸류체인 기업과 이수스페셜티케미컬, 대주전자재료,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포스코퓨처엠, 엘앤에프 등 전고체배터리 밸류체인 기업에 분산 투자한다.

신현진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ESS는 AI 전력

인프라 확대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고체배터리는 양산 일정이 구체화되면서 다음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라며 "KODEX 전고체배터리ESS TOP2플러스가 투자자들에게 배터리 산업의 현재와 미래 성장성에 함께 투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심하고 확인하고 끊고 신고…

KB금융, 금융사기 피해 예방 총력

경찰청·안실련과 ‘의심전심 캠페인’ 전개

박선영 기자 dtodaynt@gmail.com

KB금융그룹이 경찰청,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의심전심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의심전심 캠페인'은 보이스피싱과 스캠 등 다양한 금융사기 수법을 알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행동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낯선 연락을 받았을 때 '의심하고, 확인하고, 끊고, 신고하기' 등 필수 4대 행동수칙을 익히도록 영상 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먼저 투자리딩방 사기, 딥페이크 피싱, 노쇼 사기 등 신종 수법과 대응 요령을 담은 예방 영상 콘텐츠를 선보인다.

방송인 김대호가 출연해 상황별 행동 요령을 알

기 쉽게 전달하며, 이날 공개된 투자리딩방 사기 예방편을 시작으로 경찰청 통합대응단과 KB금융 공식 SNS, KB국민은행 전국 영업점 객장 TV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24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제8회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서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함께 피싱 예방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정상 통화와 사기 통화를 비교하는 '청각 의심존'과 문자·SNS 속 피싱 단서를 찾아내는 '시각 의심존'을 통해 관람객들이 대처법을 직접 익힐 수 있도록 했다.

KB금융은 예방 활동과 더불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부터 경찰청, 신용회복위원회와 협력해 피해자를 위한 신용·심리상담과 법률상담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KB국민은행은 전국 6곳에서 KB희망금융센터를 운영하며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있다.



서울 강서구 마곡 MICE 복합단지 '르웨스트(L'WEST)' CP1 블록에 코엑스 마곡과 머큐어 서울 마곡을 비롯해 각종 업무·상업 시설이 들어섰다. 아래 사진은 CP2 블록에 오피스텔 '롯데캐슬 르웨스트'가 들어섰으며(왼쪽), 외관에 그레이와 베이지 계열의 벽돌 타일 패널을 활용한 반복적 수직 프레임이 적용됐다(오른쪽).

롯데건설, 마곡 복합단지 ‘르웨스트’ 외관 ‘굿디자인 어워드’ 수상

서로 다른 공간 연결하는 ‘어반 레이어 앤 커넥티비티’ 개념 적용

4개 블록 복합도시 구성…코엑스 마곡·시니어 레지던스 등 조성

블록별 맞춤형 외관 설계로 개방감 극대화…3개 상품도 GD 마크 획득

이승준 기자 report0330@gmail.com

롯데건설이 '2026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서울 강서구 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 '르웨스트' 외관 디자인으로 동상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산업통상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굿디자인 어워드'는 상품 디자인, 외관, 기능, 경제성 등을 종합 심사해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에 'GD(Good Design) 마크'를 부여하고 시상하는 제도다. 1985년부터 시행해 올해 42번째를 맞았다.

'르웨스트'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조성된

마이스 복합단지로, CP1, CP2, CP3-1, CP3-2 등 총 4개 블록으로 구성됐다.

CP1에는 코엑스 마곡과 머큐어 서울 마곡, CP2에는 오피스텔 '롯데캐슬 르웨스트', CP3-1에는 시니어 레지던스 'VL르웨스트', CP3-2에는 업무·상업 시설이 각각 들어섰다.

'르웨스트' 외관 디자인은 독립된 공간 성격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도시 조직을 형성한다는 뜻의 '어반 레이어 앤 커넥티비티' 개념을 적용했다.

비주거 시설의 수평 레이어와 주거 시설의 수직 프레임을 대비시키고 베이지·그레이·블루 계열 색상을 조합해 단조로움을 줄이고 복합도시

경관을 구현했다.

블록별 특성을 살린 입면 설계도 반영했다. CP1 블록은 수평으로 길게 뻗은 캔틸레버 구조에 대형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해 역동적인 도시 이미지를 살렸으며, 투명 유리 커튼월과 수평 레이어로 개방감을 넓혔다. CP2 블록은 그레이·베이지 계열의 벽돌 타일 패널을 적용한 수직 프레임용, CP3-1 블록은 수직 석재 패널 마감과 커튼월락을 적용해 완성도를 더했다.

아울러 원주 롯데캐슬 시그니처 '자작의 호수' 정원, 청담 르엘 '잔별' 작품, VL르웨스트 커뮤니티 공간 등 3개 상품도 우수 디자인으로 함께 선정됐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마곡지구를 대표하는 복합단지 르웨스트가 기능적인 측면과 실내 디자인뿐만 아니라 도시 경관에 가치를 더하는 외관 디자인으로도 인정받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인천시, 도서지역 ‘공공 모빌리티’ 물꼬 텃다

영종~덕적 도심항공교통 실증 성공

20일 영종도~덕적도 연결 노선서

도서지역 공공수요 UAM 실증 완료

안종삼 기자 ajs3110@hanmail.net

인천시가 도서 지역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도심항공교통(UAM)을 활용한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입지를 강화해 나간다.

시(시장 박찬대)는 항공우주산업융합원, K-UAM One TEAM과 함께 10월 20일 영종도와 덕적도를 연결하는 노선에서 도서지역 공공수요 기반 도심항공교통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은 '2026년 인천 도서지역 도심항공교통 실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내륙 의료 기관 이용, 생활 서비스 접근, 긴급 이동 등 도서 지역 특유의 공공수요를 고려해 공공형 도심항공교통 서비스의 운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도입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실증에는 항공우주산업융합원을 비롯해 KT, 대한항공,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인천국제공항공사로 구성된 'K-UAM One Team'이 참여했다. K-UAM One Team은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K-UAM 그랜드챌린지'에서 축적한 도심항공교통 통합운용 역량을 도서지역에 적용했다.

실제 비행은 영종도 거잠포·왕산마리나와 덕적도를 연결하는 구간에서 도심항공교통 대역기인 헬기를 활용해 진행됐다. 노선 설계 과정에서는 공항 주변 공역과 기존 항공교통 흐름, 해상 비행 특성, 이착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실증에 필요한 운항 조건과 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인천시 도심항공교통 플랫폼과 국가연구개발과제로 개발된 도심항공교통 교통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운항관리, 교통관리, 버티포트 운영, 통신 및 정보공유 등 도심항공교통 서비스에 필요한 기능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비행 중 실시간 위치와 주변 교통 상황을 확인하는 등 통합운용 체계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살폈으며, 통신망과 시스템 간 연

계 상태를 확인해 향후 운용체계 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실증은 도서지역의 공공수요 발굴부터 운항 노선 설계, 실제 비행 검증까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민간 기업이 협력해 추진한 국내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자체 차원에서 도심항공교통 기술을 도서 주민의 실질적인 이동 편의와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평가다.

시는 현장에서 확인한 운항 조건과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노선 운영계획과 이착륙 인프라, 통신·교통관리체계 및 안전관리 방안을 보완하고, 거잠포와 덕적도를 중심으로 버티포트 조성 및 기존 시설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광근 시 해양항공국장은 "이번 실증은 도심항공교통 기술을 도서지역의 실제 교통수요와 연계해 공공서비스로 확장할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고, 인천의 도심항공교통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실증 결과를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 지정 추진과 연계해 후속 실증과 단계적 서비스 도입을 위한 실행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KDN **한전KDN****발전**

경제적인 전력 생산과 정확한 거래
에너지 ICT로 만드는 그린 에너지 세상

**에너지신사업**

4차 산업혁명 선도기술을 적용한 에너지신사업
발굴을 통하여 에너지 ICT 선도기업으로 도약

**송변전**

전국에 산재한 설비, 완벽한 관리 및 운영
전력공급 설비의 안정성 및 효율성 보장

**배전**

전기 사용을 위한 전천후 매니저
고품질의 전기 공급

**경영정보**

고객의 특성에 맞는 전력경영 IT
솔루션 컨설팅, 설계 및 구축

**판매**

전기사용의 정확한 계량, 검침, 수납
고객과의 정직한 만남

상상을 넘어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갑니다

한전KDN은 에너지 신기술로 전력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에너지 IC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스마트한 세상을 한전KDN이 만들어갑니다

새로운 에너지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리더, 한전KDN



재해 취약 주거지에서 상도권역 생활 중심지로

서울시, 상도동 201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옹벽 붕괴·침수 등 자연재해에 노출됐던 저층 성대로~국사봉자락으로 열린 통경축 계획

박선영 기자 report0330@gmail.com

서울시가 상도동 201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이번 기획으로 옹벽 붕괴, 침수피해에 노출되었던 노후 저층 주거지가 최고 35층, 약 1800세대 규모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대상지는 상도초교·상도유치원 등 교육 시설과 공원·시장 등 생활편의시설이 가까이 우수한 생활환경을 갖춘 주거지다. 특히 상도권역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역사권 장기전세주택, 지역주택조합사업 등 다수의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주변 개발과 연계한 체계적인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이다.

대상지는 2015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상도초 및 장승배기로 인근 옹벽구간 등 급경사와 협소한 도로, 계곡

형 지형으로 인한 침수취약지역 등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은 대상지와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기반시설과 보행동선을 계획하고, 열린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리고 일상을 나누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공원~커뮤니티~공공시설을 연결하여 머무르고 교류하는 주거단지 △교통체계를 개선해 주변지역과 연결되고 보행이 편리한 주거단지 등 △지형을 활용한 생활공간으로 더욱 편리한 주거단지 3가지 계획원칙을 담았다.

먼저, 대상지 북측에 공원을 계획하고 이를 중심으로 T자형 공공클러스터를 조성해 주변 개발사업에서 확보한 공공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했다. 이를 통해 주민 누구나 머무르고 쉴 수 있는 세대통합형 커뮤니티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주변 개발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 흩어져 있던 공원·공공공지와 단절된 도로를 하나로 잇고, 학교·유치원 등 공공 시설과 주요 커뮤니티시설을 중심으로 T자형 공공클러스터를 구성했다.

특히 상도초등학교변에는 교육특화시설을 배치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남측에는 어르신쉼터 등 생활편의시설을 배치해 다양한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북측 공원에서 남북도로를 거쳐 국사봉까지 이어지는 폭 30m의 통경축을 확보해 상도모에서 국사봉 자락으로 열린 경관을 형성하고, 주변 개발사업과 국사봉의 지형에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둘째, 성대로 일대에 대상지를 포함해 약 1만 세대의 개발이 예정된 만큼, 미래 교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계획했다.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된 연결한 상도 14·15구역과 연계해 성대로를 폭 17m(차로)로 일괄 확폭했다.

대상지는 빗물이 모이는 계곡형 지형이며, 남북을 가로지르는 도로 하부에는 노후 하수관로가 매설돼 있어 침수 위험이 컸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에서는 대상지 일대

하수관로를 정비해 침수 위험을 해소하는 동시에, 외부 차량 통행이 적은 해당 도로를 입체도로로 결정해 차량흐름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성을 최대한 확보했다.

마지막으로 대상지의 지형적 특성을 적극 활용해 단차를 살린 입체적인 생활공간을 만들었다. 지형에 따라 발생하는 단차에는 데크주차장, 주민공동시설, 외부마당 등을 배치하고, 단지 내 보행로와 주요 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동하며 다양한 생활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계획했다.

옹벽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상도초등학교 인근에는 높은 옹벽을 세우는 대신 단차에 맞춰 주민공동이용시설 건축물을 배치해, 옹벽으로 인한 붕괴 위험을 줄이고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단지 내 보행로는 기존 지형을 살린 자연경사형 동선으로 계획해 주민들이 주요 시설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상도동 201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의 기획 과정, 계획 내용, 3D 시뮬레이션 영상은 서울특별시 누리집 '신속통합기획 온라인 아카이브'에서 확인 가능하며, 시민 누구나 대상지의 변화와 기획 전 과정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극 '살갓이에 내리는 평화'가 무대에 오른다. 역사적 이야기를 극적인 공연으로 풀어내 관람객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통 가락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퓨전국악 공연도 펼쳐져 축제의 흥을 돋운다.

행사의 열기는 구민들이 직접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성동구민 노래자랑'으로 이어진다. 치열한 예심을 거쳐 본선에 오른 주민 참가자들이 숨은 노래 실력과 끼를 마음껏 발휘하며, 가족과 이웃이 함께 응원하고 즐기는 화합의 무대를 꾸민다. 여기에 인기 초대가수의 축하공연까지 더해져 가을밤 축제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유보화 구청장은 "태조 이성계 축제와 구민 노래자랑이 함께 열리는 만큼, 역사와 문화는 물론 구민들의 끼와 열정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많은 주민들이 함께해 서로 응원하고 소통하며 즐거운 추억을 쌓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동구, 살갓이서 환궁 행렬 재현하는 ‘태조 이성계 축제’

살갓이와 태조 이성계의 역사를 ‘환궁 행렬’과 ‘창작 전통 연희극’으로 현대적 재해석 선보여



성동구(구청장 유보화)는 오는 24일 살갓이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2026 태조 이성계 축제'와 '성동구민 노래자랑'을 함께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는 조선 태조 이성계와 깊은

박선영 기자 report0330@gmail.com

인연이 있는 '살갓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에 깃든 역사적 이야기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성동구민 노래자랑'을 함께 개최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축제로 꾸며진다.

축제는 오후 5시 태조 이성계의 귀환을 재현한 '이성계 환궁 행렬'로 환한 포문을 연다. 취타대, 가수, 무사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행렬이 함흥에 머물던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의 설득으로 한양으로 돌아가던 중 살갓이벌에 이르는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한다.

이어 태조 이성계의 환궁 이야기를 담은 오프닝 영상과 함께 특별 창작 전통 연희

마포구 헬러윈 흥대

베테랑 전문가가 인파관리 체계 강화

요원 241명으로 지난해보다 91명 늘어 전문성↑ 업무 공백↓ 23일부터 11월 1일 새벽 3시까지...보행·상권 고려 현장합동

박선영 기자 report0330@gmail.com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헬러윈데이를 앞두고 흥대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10월 23일부터 11월 1일 새벽 3시까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관리에 나선다.

서울시시간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1일 헬러윈데이에는 흥대관광특구 일대에 순간 최대 11만 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올해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해 선제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다중이용과 운집 대비 안전관리 TF를 구성하고 10월 2일 안전관리대책을 사전 검토했으며, 10월 6일에는 마포경찰서와 마포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5개 기관과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다.

TF 소속 부서들은 10월 8일부터 22일까

지 교통·건설·도로·위생 등 관련 분야별 현장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위험 요소는 시정조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안전관리 기간에는 흥익문화공원 내 창작센터에 현장 합동상황실을 설치한다. 보행자 통행과 주변 상권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기존 상사마당 앞 광장에서 장소를 옮겼다.

9일장 현장에는 공무원 64명, 안전요원 241명, 자율방재단 20명이 투입된다. 지난해보다 공무원 투입 인원은 201명 줄이고 안전요원은 91명 늘어 현장 인파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심야 근무로 생기는 업무 공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공무원은 안전관리 기간 매일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근무하고, 주말에는 안전요원도 같은 시간까지 현장을 지킨다. 자율방재단은 매일 밤 12시까지 활동한다.

강남구-따뜻한동행

주거 취약계층 58가구 ‘잔고장 수리’ 157건 완료

잔고장 수리-홈케어 서비스' 지원

박선영 기자 report0330@gmail.com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과의 협업을 통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주거 취약계층 58가구를 대상으로 총 157건의 '잔고장 수리-홈케어 서비스' 지원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5년 4월 체결된 강남구와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 간 복지 협력 업무협약(MOU)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으며, 주거 취약계층 58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30만 원 상당의 집수리를 지원했다.

특히 이번 수리비용은 강남구 예산

없이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에서 사업비 2000만 원을 전액 후원해 행정 효율성과 민간 복지 자원 활용을 극대화했다.

구는 2022년부터 일반·특수청소, 방역소독, 소규모 집수리 등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홈케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소규모 집수리 분야의 신청 수요가 급증하여 조기 마감됨에 따라, 자칫 지원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던 취약계층 가구를 따뜻한동행의 '잔고장 수리' 사업으로 연계하게 됐다.

이번 홈케어 서비스를 통해 방충망 교체,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바 설치, 빨래건조대 및 노후 수전 교체 등 일상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밀착형 설비 총 157건을 신속하게 정비했다.

동대문구, 생태놀이~대학 실험실 탐방까지 맞춤형

유아·초·중·고 대상 총 35회 규모 운영

선농단·서울한방진흥센터서는 기후재난

대응교육...지역 역사·문화와 체험 결합

박선영 기자 report0330@gmail.com

동대문구(구청장 최동민)가 지역 내 풍부한 자연환경과 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하며 구민의 환경 감수성 함양과 생활 속 실천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는 9월부터 동대문구환경교육센터를 중심으로 관내 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간 35회 규모의 '동대문구청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 중이다. 단순한 주입식 이론 교육에서 벗어나 연령별 발달 특성에 맞춘 체험 중심 교육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관내 대학인 서울시립대학교 실험실과 연계한 환경공학 체험 프로그램이 눈

길을 끈다. 중학생 대상으로는 서울시립대 연구실을 직접 방문하는 '인간과 환경 실험실 탐방'을 진행하며, 고등학생 대상으로는 '수질오염과 지표 용존산소 실험'을 운영해 학생들이 환경문제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공학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진로 연계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성장 단계별 눈높이에 맞춘 생태 프로그램도 순항 중이다.

이와 함께 구는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후위기 재난대응교육'을 구민과 학생·가족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서울한방진흥센터와 선농단역사문화관 등 지역 역사·문화 공간에서 열리는 교육은 기후위기와 질병의 상관관계, 전통 지혜를 담은 건강관리법, 기후재난 시 행동요령 등을 폭넓게 다룬다.

참가자들은 한방 족욕제 및 천연 비누 만들기, 범제 목걸이와 서약 손수건 제작 등 다채로운 실습을 통해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환경 대응 수칙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있다.

박계홍 서울시의원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화 앞장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이승준 기자 report0330@gmail.com

박계홍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3선거구)은 지난 19일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사진>

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민간 건축공사장의 모든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꼼꼼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법제화하여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은 시장이 건축공사의 안전관리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민간 건축공사장의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안 제51조제1항). 또한,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동영상 기록관리의 절차, 방법, 기록물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안 제51조제3항).

특히,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그동안 동영상 촬영 및 편집 등에 따른 추가 비용 문제로 참여에 소극적이었던 중·소규모 민간 건축공사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동영상 기록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안 제52조제1항), 지원 대상과 기준,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박계홍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건축물 안전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가 확고히 뿌리내려, 부실시공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튼튼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동영상 기록관리 비용 지원을 통해 중·소규모 공사장의 자율적 인 참여를 독려하고 현장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방보조금 전용 계좌·카드’ 지역 금융기관 3곳으로 확대

영종구, 영종새마을금고·영종신협과 협약 오는 2027년 1월1일부터 적용

안종삼 기자 ajs3110@hanmail.net

내년부터 영종구로부터 지방보조금을 받는 보조사업자의 금융기관 선택권이 넓어지며, 전용 계좌 이용 편의가 한층 더 향상될 전망이다. <사진>

인천시 영종구(구청장 손화정)는 지난 20일 영종구청 구청장실에서 영종새마을금고, 영종신용협동조합과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전용 계좌 및 카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으로, 구 금고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지방보조금 전용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데 따른 것이다.

‘지방보조금 전용 계좌’와 ‘전용 카드’는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받아 집행할 때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계좌와 카드를 말한다. 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보통 e)과 연계해 관리된다.

그동안 영종구의 지방보조금 전용 계좌는 구 금고인 신한은행 한 곳에서만 개설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평소 새마을금고나 신협을 주로 이용하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별도로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협약에 따라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보조사업자는 신한은행 외에 영종새마을

금고와 영종신협에서도 전용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전용 카드도 기존 신한카드·농협카드 외에 신협카드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구는 협약기관 선정 과정에서 경영실태평가 ‘양호’ 이상 등급을 받은 기관으로 대상을 한정해 보조금의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를 도모했다.

협약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이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된다.

손화정 영종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보조사업자들은 평소 거래하는 지역 금융기관에서 편리하게 보조금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물포구, 제1회 제물포구청장배 전국외발자전거 울트라대회 개최

안종삼 기자 ajs3110@hanmail.net

인천 제물포구(구청장 김찬진)는 지난 18일 월미 공원 일대에서 제1회 제물포구청장배 전국 외발자전거 울트라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물포구가 후원하고, 제물포구체육회와 제물포구의발자전거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제물포구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100여명의 외발자전거 동호인들이 참가하여 행사를 즐겼다.



올해는 월미공원 둘레길을 완주하는 것으로 대회가 진행되었으며, 낙오자 없이 전원 완주에 성공하여 대회에 참가한 동호인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

휘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 “제물포구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외발자전거 동호인들이 함께 모여 대회를 즐기게 돼 기쁘다”

며 “참가자 모두 안전하게 코스를 완주한 것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외발자전거를 통해 건강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동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침수 예방시설·건강지원센터 현장점검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등 2곳 방문
재난대응체계·보건서비스 운영 확인

박근식 기자 gunsigpark@hanmail.net

인천 남동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조)는 제31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0일 오후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과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를 방문해 재난안전시설 관리 실태와 주민 건강지원 사업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사진>

이번 현장활동은 지역 내 침수 예방체계를 확인하고 보건·복지 서비스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점검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8명과 전문위원, 관계 직원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위원들은 각 시설의 운영 현황과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관리 상태와 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첫 방문지인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에서는 집중호우에 대비한 방재시설 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위원들은 상습 침수지역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설치된 저류조와 관련 시설의 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침수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우수저류시설은 집중호우 때 빗물을 일

시적으로 저장해 하수관로의 부담을 줄이고 주변 지역의 침수 위험을 낮추는 방재 시설이다. 위원회는 해당 시설의 운영 상태를 확인하며 지역 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 관리의 중요성을 살폈다.

이어 방문한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건강관리 및 보건·복지 서비스의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특히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재활보건 사업 등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센터의 역할과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시설 관계자들로부터 운영과정에 발생하는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에서 확인한 사항은 향후 복지·안전 분야 정책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데 활용될 계획이다.

김영조 복지건설위원장은 “구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확인과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현장활동을 통해 파악된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부평구, 2027년 통합돌봄 제공기관 모집

오는 11월 3일까지 접수

김용기 기자 kyk797079@hanmail.net

인천 부평구가 내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참여할 서비스 제공기관을 모집한다. 신청 기한은 11월 3일까지다. 부평구는 고령이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2027년 부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제공기관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방문구강진료, 방문운

동지원, 공공돌봄, 외상대상자 이동지원, 식사지원, 취약공간 집중정소지원, 착한 집 만들기 등 모두 11개 사업이다. 분야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과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대면심사를 거쳐 제공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은 2027년 사업 기간에 구와 협력해 돌봄 대상자의 개별적인 필요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신청 자격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누리집 공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해구

도서지역 정전 신속 대응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안종삼 기자 ajs3110@hanmail.net

인천 서해구(구청장 구재용)는 지난 20일 한국전력공사 서인천지사(지사장 주상도)와 도서지역 전력 설비의 신속한 복구체계 구축 및 정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도서지역 정전 발생 시 서해구 소유의 행정선을 활용한 전력 설비 복구 비상 동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구재용 서해구청장과 주상도 한국전력공사 서인천지사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정전 및 재난 발생 시 서해구 행정선을 활용한 긴급



복구 인력을 수송하는 비상 동원 체계를 구축하고, 세어도 지역의 정전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재용 구청장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전력 공급 안정화를 위해 양 기관이 힘을 합치게 되어 매우 의미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전력공사 서인천지사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도서 주민들이 정전 걱정 없이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계양구, 우수 관리문화 ‘확산’ 나선다

공동주택 관리 ‘모범사례 2곳’ 배출

김용기 기자 kyk797079@hanmail.net

인천 계양구 초정마을 두산쌍용아파트와 작전포림아이원아파트가 공동주택 관리 우수성을 인정받아 인천시 모범관리단지에 선정됐다.

계양구는 두 단지의 관리 성과를 지역 공동주택에 확산해 시설 관리의 투명성과 주민 소통을 높이고, 입주민이 체감하는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가야 한다.

이번 평가는 일반관리, 시설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등 4개 항목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진행됐다. 전체 평가에서 최우수 1개 단지와 우수 2개 단지가 선정됐으며, 계양구에서는 초정마을 두산쌍용아파트와 작전포림아이원아파트가 모두 우수 단지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선정은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공동주택 관리에 힘써 온 결과라

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파트 관리는 시설물 유지뿐 아니라 관리의 투명성, 생활 불편에 대한 신속한 대응, 이웃 간 소통까지 주민의 일상과 직결되고 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 감응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선정 단계에는 인천시 모범관리단지 인증 동반이 수여되며, 향후 국토교통부 우수관리단지 선정 후보로 추천받을 수 있다.

다만 수상 자체가 모든 입주민의 만족이나 관리비 절감으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성과를 확인하려면 시설 보수 실적, 민원 처리 결과, 에너지 사용량 변화, 주민 참여 수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계양구는 두 단지의 우수 관리 사례를 지역 공동주택에 확산하고, 시설 관리와 주민 소통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우수 사례를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연결할 때 입주민의 신뢰와 공동주택 관리수준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

미추홀구, ‘군부대 주차장’ 주민 품으로

제507여단 2대대와 협약 체결

임시 개방 거쳐 주민 이용 허용

박근식 기자 gunsigpark@hanmail.net

인천 미추홀구가 관교동 승학산 예비군훈련장 주차장을 주민에게 정식 개방한다. 훈련일 차량 출입 제한으로 불편을 겪었던 둘레길·생활체육시설 이용객의 주차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사진>

지난 19일 미추홀구는 제507여단 2대대와 협약을 체결하고 승학산 예비군훈련장 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한다. 지난 12일 임시 개방에 이어 정식 개방이 이뤄지면서 주민 이용 편의가 확대됐다.

해당 주차장은 지난 8월부터 진입로 주변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로 훈련일에는 차량 출입이 통제됐다. 훈련이 없는 날 오후 6시 이후와 주말·공휴일에만 이용할 수 있어 승학산 둘레길과 생활체육시설을 찾는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이에 구와 군부대는 협의를 통해 주차장 개방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 조치는 군부대 시설을 지역 주민과 공유해 생활 불편을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승학



산 이용객의 접근성이 나아지고 주변 도로의 주차 부담을 덜 가능성도 있다.

미추홀구는 주차장 개방 이후 이용 현황과 주변 교통 흐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진입로 혼잡과 보행 안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주차 공간 확충이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이어지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김정식구청장은 “주차장 개방은 민·관·군이 서로 배려하고 소통해 이뤄낸 값진 상생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검단구·국제성모병원

지역 의료 발전 협력 방안 논의

김진규 구청장, 심장혈관병원

소아청소년 통합의료센터 방문

안종삼 기자 ajs3110@hanmail.net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은 지난 19일 김진규 검단구청장과 지역 의료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검단구와 지역 의료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의료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국제성모병원 의료원장 겸 병원장 고동현 신부, 김명곤 의무원장, 행정부원장 박종훈 신부를 비롯해 검단구 김진규 구청장, 송승환 혁신전략실장, 김미

소 보건행정과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김진규 구청장은 고동현 병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검단구와 의료기관 간 교류 확대와 지역 의료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문단은 국제성모병원 심장혈관병원, 국제협력센터, 로봇수술센터 등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특히 지난 9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국제성모병원이 마련한 소아청소년 통합의료센터와 신생아 중환자실을 방문해 소아청소년 진료 체계도 살폈다.

가톨릭관동대학교의료원장 겸 병원장 고동현 신부는 “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곳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료기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특히 검단구는 만 19세 이하 인구 비중이 인천시에서 가장 높은 지역인 만큼, 소아청소년 질환은 물론 심장·뇌혈관질환 등 중증·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해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 화정2동·성사2동서 ‘열린 주민소통 공감토크’ 생활 밀착형 현안 집중 논의

화정2동, 보행 안전·공원 환경 개선·복합 공공시설 건립 등 건의 성사2동, 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버스정류장 쉼터 설치 등 개선

조병언 기자 bycho56@gmail.com

고양특례시(시장 민경선)는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일 화정2동과 성사2동을 연이어 방문해 ‘2026 열린 주민소통 공감토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먼저 화정2동에서는 보행 안전과 도시환경 정비에 관한 건의가 눈에 띄었다. 주민들은 △인조잔디형 가로수 보호덮개 교체 및 단차 평탄화 △보행자도로 펜스 설치 △화정중앙공원 야외무대 안전환경 개선 등을 요청했으며, 화정2동 내 유희부지를 활용한 복합 공공시설 건립도 건의했다.



이어 성사2동에서는 마을과 공원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 개선 요청이 이어졌다.

주요 건의 사항은 △별모래어린이공원 화장실 전면 개선 △신원당마을 입구 버스정

류장 스마트쉼터 설치 △신원당마을 입구 사거리 쉼터 설치 △성라공원 공동묘지 화단 조성 및 정비 등으로, 주민들이 매일 오가며 이용하는 생활공간의 환경 개선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소소하지만 절실한 건의 사항을 직접 듣고, 관련 부서와 함께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시장실을 1층으로 옮긴 것은 고양시의 주인인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것”이라며 “인구 규모에 비해 넉넉하지 않은 재정 여건이지만, 고양시의 강점과 자산을 활용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특례시는 앞으로도 관내 44개동을 순회하며 ‘2026 열린 주민소통 공감토크’를 이어가고,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담아낼 방침이다.

군포시, 겨울철 대설 대비 주요 제설시설 현장 점검

한대희 시장 주재, 안전총괄과·건설과 등 재난 대응부서 합동 제설창고·염수분사장치 정상가동여부 등 시설 전반집중 확인

이호현 기자 hyeon5962@dtoday.co.kr

군포시는 지난 20일 다가오는 겨울철 대설과 도로 결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내 주요 제설시설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에 나섰다. <사진>

한대희 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점검에는 안전총괄과와 건설과 등 재난 대응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설창고와 염수분사장치 등 시설 전반의 운영 상태와 사전 대비 태세를 함께 확인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제설창고 내 친환경 제설제 비축량 및 보관 상태 △염수분사장치 정상 작동 여부 및 염수 확보 상태 △강설 시 부서별 신속한 제설 대응체계 등이다.

특히 시는 강설과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제 눈이 내릴 경우 차질 없이 제설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현장을 점검한 한대희 시장은 “대



설은 사전 준비와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제설시설과 장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은 강설 전에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 대응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확고한 제설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성남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29일 중원구청서 개최

10개 기업 참여해 57명 채용 예정…1대1 현장 면접 진행

이정미 기자 dtoday01@gmail.com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시민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4시

까지 중원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10개 기업이 참여해 생산, 토목설계, 조리, 버스운전 등 다양한 직종에서 총 57명을 모집한다. 구직자들

은 희망 기업의 채용 담당자와 1대1 현장 면접을 통해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참여 기업과 모집 직종은 △썬앤즈(생산) △덕양엔지니어링(토목설계) △한국맥도날드유한회사(조리) △(썬)카스코리아(계측) △썬케어마스터(객실관리) △썬삼구아이앤씨(생산) △쿠팡

풀필먼트서비스(상품검수·포장) △썬파리크라상(생산) △분당마을버스(버스운전) △썬대원버스(버스운전)다.

취업을 희망하는 시민은 이력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행사 당일 방문하면 원하는 기업의 채용 부스에서 현장 면접에 참여할 수 있다. 행사장에서는 지문 적성검사, 이력서용 사진 무료 촬영, 국민연금 상담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돼 구직자들의 취업 준비를 돕는다.

파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추가 지원

공장등록 제조업 대상 오는 30일까지 신청

조병언 기자 bycho56@gmail.com

파주시는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2026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운전자금을 대출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파주시가 지원하는 제도로,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파주시 관내에 공장등록을 마치고 가동 중인 제조업체로, 제조 전입률이 30%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다만, 공장등록 대상이 아닌 기업도 사업

장 연면적이 500㎡ 미만이면서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인 기업은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3억 원이며, 융자 기간은 2년(만기 일시상환) 또는 3년(1년 거치 후 2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 실행 시에는 연 2%의 이차보전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우현 기업지원과장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이번 추가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영 여건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

만11~18세 모든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구입비 14만2천원 지원

2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접수

황선인 기자 hsin7777@hanmail.net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모든 여성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한 사람당 14만 20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키로 하고 이날부터 하반기 기본 신청을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그간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선점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이번 추가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영 여건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비 32억 3050만 원과 도비 13억 8450

만 원 등 총 사업비 46억 1500만 원이 투입된다. 시에 주소를 둔 만 11~18세 여성 청소년(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이라면 누구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월 1만 1800원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14만 2000원의 지원금을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 모바일 카드로 지급한다. 단, 여성가족부의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동일한 지원금을 받는 대상자에게는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다.

온라인과 방문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은 21일부터 30일까지 ‘경기민원24’에서, 방문은 2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상반기에 이미 신청한 청소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0월 안에 하반기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신규로 신청하는 청소년은 자격 확인을 거쳐 11월 13일 이후 순차적으로 연간 지원금 총액을 한 번에 받게 된다.

광명시, 여성플러스센터 22일 문 연다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4층에 1150㎡ 여성 친화적 소통·문화 공간 한곳에

이상영 기자 lsy1337@naver.com

광명시에 여성과 시민의 일상에 쉽고 활력을 더할 소통·문화 공간이 문을 연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인문학 원데이 클래스 ‘문장에 머물다’를 시작으로 여성플러스센터 22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여성플러스센터는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4층에 연면적 1150㎡ 규모로 조성한 광명시 두 번째 여성소통문화 공간이다. 첫 번째는 2021년 광명7동 생활문화복지센터 내 문을 연 ‘도란도란’이다.

센터는 가사와 육아, 직장생활 등으로 지친 여성과 시민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과 문화 활동을 즐기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휴게 공간과 프로그램실, 상담 공간 등을 갖췄다.

주요 시설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나눔배움실’ △족욕실과 건식사우나를 갖춘 여성 전용 ‘쉼

공간’ △개인·집단·부부 상담을 제공하는 ‘마음이음실’ △영유아 동반 가족을 위한 ‘아이사랑’ △주민과 단체의 모임 공간인 ‘소담소담’ △자유롭게 머물며 교류할 수 있는 ‘오픈라운지’ 등이다.

센터는 22일 ‘나눔배움실’에서 인문학 원데이 클래스 ‘문장에 머물다’를 시작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책을 읽으며 일상에서 새로운 감각을 발견하는 ‘책으로 나누는 일상-삶의 경이감 일깨우기’와 시·소설·희곡 등 좋아하는 문학작품을 낭독하는 ‘소리 내어 읽는 이야기-1인 낭독 체험’ 등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앞으로 매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광명시민뿐만 아니라 광명시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성별과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나눔배움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오는 11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시는 올해 무료 시범운영을 거쳐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점진·보완한 뒤 내년 1월부터 유료로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안산시, 23일부터

‘안산 잇(it) 세일 페스타’

10% 캐시백 지급

이호현 기자 hyeon5962@dtoday.co.kr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안산페스타 기간에 맞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안산 잇(it) 세일페스타’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안산 잇(it) 세일페스타’는 안산페스타와 연계해 시민들에게 소비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상권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명에 사용된 ‘잇(it)’은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잇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행사 기간 안산시 지역화폐인 다운카드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관련 예산이 소진될 경우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행사 기간인 23일부터 31일까지 착한가격업소에서 다운카드로 결제하면 기본 10%에 추가 5%를 더해 총 15%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 추가 5% 캐시백 사업은 12월 31일까지 별도로 운영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행사가 시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소비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소상공인에게에는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안산페스타와 함께 지역 상권을 이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세계 정신건강의 날 맞이 걷기 캠페인 성료

임영섭 기자 6k2bbj116@hanmail.net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16일 송내동 메타세쿼이아길에서 세계 정신건강의 날 기념 걷기 캠페인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사진>

세계 정신건강의 날은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이번 캠페인은 일상 속 신체활동을 통해 정신건강증진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돌

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정신건강 인식개선홍보와 향기 테라피, 안마 시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이 정신건강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건강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일상 속 실천 방법”이라며 “이번 캠페인이 시민들이 자신의 마음 건강을 돌아보고,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을 줄이며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엑셀리스 아시아 운영센터 착공 반도체 산업 기반 강화

평택시, 오성 외국인 투자 지역에
575억 투자 2028년 상반기 목표

이호현 기자 hyeon5962@dtoday.co.kr

평택시(시장 최원웅)는 지난 20일 오성 외국인 투자 지역에서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 엑셀리스의 ‘아시아 운영센터(AAOC)’ 확장·이전 착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행사에는 최원웅 평택시장과 주미애 경기도지사, 강감찬 산업통상부 무역투자실장, 러셀 로우 엑셀리스 최고경영자(CEO), 박영근 엑셀리스코리아 대표를 비롯해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 및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착공을 축하했다.



엑셀리스는 반도체의 전기적 특성을 조절하는 핵심 공정인 이온주입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이다. 평택에서 운영 중인 ‘아시아 운영센터’는 엑셀리스의 유일한 해외 제조 거점으로,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에 장비를 공급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수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기존 평택 아시아 운영센터를 확장·이전하는 투자로, 오성 외국인 투자 지역 내 2만 2326.5㎡ 부지에 약 575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약 1만 8800㎡ 규모의 시설을 조성한다. 202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며, 이온주입 장비 제조 시

설과 부품 공급을 위한 물류창고, 고객 교육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엑셀리스의 이번 투자는 생산 시설 확충과 함께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의 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기회가 확대돼 지역 반도체 산업 생태계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원웅 시장은 “평택에서 성장을 이어온 엑셀리스가 아시아 운영센터 확장·이전을 통해 새로운 도약에 나선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투자가 평택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엑셀리스가 평택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지원과 기업 애로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플레이엑스포 열기 사업화로 이어간다

오는 27일 ‘경기게임커넥트 2026’ 개최

허필속 기자 hpsookjsh@hanmail.net

경기도가 수도권 대표 게임쇼 ‘플레이엑스포(PlayX4)’에서 시작된 게임기업의 도전을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후속지원에 나선다.

도는 오는 27일 성남 판교 경기장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경기게임커넥트 2026(G-Game Connect 2026)’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게임커넥트는 지난 5월 열린 ‘2026 플레이엑스포’ 후속지원 프로그램이다. 전시 참가와 비즈니스 상담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계약과 투자 유치, 글로벌 퍼블리싱 등 사업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내 게임기업에 집중적인 성장 기회를 제

공한다. 이번 행사는 게임기업의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와 미래 게임산업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취업설명회에서는 펠어비스가 게임산업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블루홀스튜디오, 매드엔진, 하이퍼센트 등 현업 전문가들이 직군별 취업 토크쇼에 참여해 생생한 실무 경험과 직무 노하우를 공유한다.

펠어비스, 블루홀스튜디오 등 6개 게임사가 참여하는 1대1 취업·직무상담회도 열린다. 청년 구직자와 예비 개발자들은 현업 전문가로부터 직무별 멘토링과 실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게임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는 전문 세미나도 마련된다.



경기도의회 최보라 의원

“도, 31개 시·군 공무원 처우 편차 해소해야”

허필속 기자 hpsookjsh@hanmail.net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20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지역자치단체공무직협의회와의 정담회에 참석해 도내 31개 시·군 공무원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최보라 의원은 “동일한 필수 공공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31개 시·군마다 임금, 복지, 단체협약 조건 등의 편차가 상당하다”며, “지자체 간 정보가 단절돼 있어 발생하는 불합리한 처우 격차는 현장 노동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불필요한 노사 갈등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보라 의원은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고 공무원 노동자의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노사민

정협의체 내에 공무원 분과를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상생 기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보라 의원은 “이번 정담회에서 확인된 31개 시·군 공무원 노동조건 격차 실태와 경기도의 미온적인 지원 체계를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도 차원의 공무원 노조 체계화 지원과 소통 창구 신설 등 가시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짚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공무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불합리한 처우 개선은 도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품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앞장서서 현장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는 튼튼한 가교가 되고, 노사민정 협의의 분과 설치를 비롯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관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대디’ 이동엽 수원특례시의회의원

청소년 도박 예방부터 회복까지 안전망

수원 최초 청소년 도박중독 종합지원 체계 마련

허필속 기자 hpsookjsh@hanmail.net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 2명 중 1명(47.1%)은 열두 살 이하에 처음 도박을 접했다. 초등학교 때 시작한다는 뜻이다. 수원특례시의회가 이러한 아이들을 위한 첫 종합 안전망을 마련했다. <사진>

수원특례시의회 이동엽 의원(의회운영위원장, 국민의힘,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405회 제1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청소년 도박 문제는 숫자로 먼저 드러난다. 도박 문제로 상담·치유를 받은 19세 이하 청소년은 2020년 1286명에서 2024년 4144명, 2025년 5838명으로 늘었다. 5년 새 약 4.5배, 지난해에만 40.9%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57.7%는 불법 온라인 도박 때문이었다. 병원 치료가 필요한 단계에 이른 아이들도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도박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19세 이하 청소년은 2015년 27명에서 2024년 181명으로 6.7배 증가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온라인 도박과 도박 광고·유인에 대한 예



방교육 및 홍보 △도박중독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상담·치료·재활·피해회복 지원 △불법사금융·협박·폭력 등 2차 피해 발

생 시 관계기관 연계 △교육기관·경찰·전문기관·청소년상담복지기관·금융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박을 제공하거나 알선·유도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 신고로 신속하게 연계되도록 하는 체계도 규정했다. 피해 청소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을 끌어들이는 쪽까지 함께 겨냥한 것이다.

지역에서 수원대디로 불리는 이동엽 의원은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왔다.

이 의원은 “위험 신호를 보인 아이 20명 중 19명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건,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손을 내밀지 못한 어른들의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가 수원의 어느 아이도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하는 약속이 될 수 있게, 집행 과정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안성시·(주)선진, 축산물 연화 기술 상용화 확대

돼지고기 뒷다리살 식감 개선

휴게소 이어 온라인 시장 진출

허필속 기자 hpsookjsh@hanmail.net

안성시가 ㈜선진과 공동으로 추진해 온 축산물 연화 기술 연구 성과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어 온라인 유통시장으로 확대하며 지역 축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시는 2024년부터 ㈜선진과 함께 돼지고기 뒷다리살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축산물 연화 기술 연구를 추진해 왔다. 돼지고기 뒷다리살은 지방 함량이 낮고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상대적으로 딱딱한 식감 때문에 소비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안성시와 ㈜선진은 효소를 활용한 육질 연화 기술과 식육 가공 기술을 접목해 식감을 개선하고,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기술 적용 가능성과 영양학적 가능성, 저장 안정성 등을 검증했다.

특히 연구 범위를 고령친화식품과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특화 메뉴 개발로 확대했다. 안성에서 생산되는 꿀과 배, 포도 등을 육가공 기술과 접목해 고속도로 휴게소와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하며 지역 농축산물의 소비 기반을 넓혔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안성맞춤휴게소 제천 방향에 김치찌개와 제육볶음, 안성 꿀배불고기 등 지역 특화 메뉴를 선보였다. 최근에는 ㈜선진의 식육 가공 및 연화 기술을 적용한 선진포크한돈 ‘동물복지 간장불고기’와 ‘동물복지 제육볶음’ 등 2종이 쿠팡에 공식 출시되면서 온라인 유통시장으로도 판로를 확대했다.

이번 온라인 시장 진출은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던 축산물 연화 기술을 실제 소비시장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았던 돼지고기 뒷다리살의 소비를 확대하고 지역 축산물의 상품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양주시, 시민과 함께 걸으며

현장 소통 이어가… 다산1동 생활 현안 살피

문화·휴식부터 생활편의시설까지 시민 목소리 청취

김영배 기자 ujbapt@hanmail.net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지난 20일 다산1동에서 시민들과 함께 생활 현장을 둘러보며 주민 건의사항을 듣고 지역 현안을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이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일정은 다산1동 ‘2기 현장시장실’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현덕 시장은 다산중앙공원 등성이슈에서 ‘현장에서 만나다’를 진행했다. 시민들과 함께 공원 산책로를 걸으며 생활환경과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시민들은 지역 내 시설 조성 계획과 생활편의시설 확충, 공원 환경 개선 등

다양한 현안에 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최 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현장 여건을 살폈다. 특히 공원 내 시설물 정비와 관련해 관계 부서에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2027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를 앞두고 정약용도서관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고 도서관 운영 현황을 살폈다.

또한 다산진건지구(주9) 공영주차장을 찾아 시설 현황과 시험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운영 여건을 확인했다.

최현덕 시장은 “시민들과 직접 걸으며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과 필요한 사항을 들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생활환경을 세심하게 살피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주시 가남읍, 민·관 함께 취약가구 ‘주거환경 개선’

민·관·지역사회가 힘모아

독거 어르신에 안전하고

쾌적한 보금자리 마련

허필속 기자 hpsookjsh@hanmail.net

여주시 가남읍(읍장 임영석)은 지난 20일 관내 기초생활수급 독거 어르신 사례관리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여러 기관·단체와 함께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동보전기(대표 전충중), 여주시사회복지사협회(협회장 권재운), 여주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박은영), 라파엘봉사단, 다산하늘센터봉사단 및 통합돌봄사업 제공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추진했다.

이날 동보전기는 노후 전기설비를 점검·정비해 전기 안전을 확보하고, 여주시 자원봉사센터는 싱크대와 문·창문 교체,

도배·장판 시공 등 주거환경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여주시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 라파엘봉사단과 다산하늘센터 봉사단은 가전제품과 가구, 화장실 등을 꼼꼼히 청소하는 등 주거공간 전반을 정비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탰다. 이에 가남읍은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과 연계해 청소 등 폐기물 처리 등 대상 가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발굴·지원하고, 주거환경 전반의 개선을 이끌었다.

임영석 가남읍장은 “여러 기관·단체가 각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모아 관내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해드려 뜻깊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과 통합돌봄 연계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주민들이 안정적인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청소년재단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카페지기 ‘피치’, 다과 제작 재능기부 펼쳐

300인분 양갱 직접 만들어 따뜻한 나눔 실천

이호현 기자 hyeon5962@dtoday.co.kr

(재)의왕시청소년재단(이사장 김성제) 산하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소속 카페지기 ‘피치’가 10월 20일, 그간 문화의집 프로그램을 참여 하며 쌓은 역량을 통해 직접 제작한 다과를 의왕시 아름체노인복지관에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피치’가 만든 다과는 약 300인분 양의 양갱으로, ‘피치’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만든 다과가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통해 보람과 성취감을 느

꼈다. <사진>

활동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많은 양의 양갱을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우리가 정성껏 만든 다과가 지역 어르신들께 전달된다고 생각하니 매우 뿌듯하고 보람찼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관계자는 “이번 재능기부를 통해 카페지기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계기를 갖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 ‘대명항 관광 판 바꾼다’...

해병대 문화에 지역 상권 ‘성장동력’ 결합

수산물 구매 후 옥상 바비큐 즐기는 ‘선셋야장’ 첫 도입, 지역 먹거리 연계
마술·군악대 공연·헬기 기동 시연부터 군 장비 전시와 가족 체험까지 마련

김용기 기자 kyk70707@hanmail.net

김포시가 오는 11월 7일 김포함상공원과 대명항 일원에서 해병대 문화와 지역 먹거리를 결합한 축제를 연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선셋야장’과 무료 셔틀버스, 지역 상권 구매 이벤트를 통해 방문객의 발길을 대명항 소비로 연결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올해로 3회째인 ‘2026 김포 해병대 문화 축제 in 대명항’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

까지 열린다. 셔틀버스 5대가 김포골드라인 마산역 1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과 대명항을 20분 간격으로 운행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인다.

이번 축제에서는 마술과 태권도 시범, 군악대 공연, 헬기 기동 시연을 비롯해 군복 착장 시연, ‘강철근육 선발대회’, 해병 장기자랑 등이 진행되며, 김포함상공원에서는 해병 장비 전시와 탐소 체험, 군복·군장 체험, 팔각도·군번줄 만들기, 레이저 사격, 스포츠 미션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올해 처음 도입하는 ‘선셋야장’은 축제와 지역 상권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이다. 방문객은 대명항 수산물 직판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한 뒤 직판장 옥상에서 서해 노을을 바라보며 바비큐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지역 농산물과 먹거리를 소개하는 로컬푸드 체험도 마련되고, 축제 당일 대명항 상권에서 3만 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을 운영본부에 제시하면 소정의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무료 셔틀과 체험 프로그램은 시민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대명항의 관광·먹거리 자원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축제 방문객 증가가 상인들의 매출 향상으로 이어지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행사장 혼잡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산물 판매와 야장 운영의 위생·안전 기준을 관리하는 일도 중요하다.

김포시는 축제 성과를 방문객 수와 상권 매출, 만족도 등으로 검증하고, 상인 참여와 후속 관광 프로그램을 강화해 대명항 재방문과 지역 소비 확대에 이어가야 한다.



NH농협은행 연천군지부

연천군 ‘제3호 나눔명문기업’ 가입

임명섭 기자 82bb6116@hanmail.net

NH농협은행 연천군지부(지부장 한창기)는 지난 20일 연천군청 군수실에서 경기사랑의열매(회장 권인옥)에 성금 1억 원을 기부하며 연천군 제3호 ‘나눔명문기업’으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덕현 연천군수와 NH농협은행 연천군지부 한창기 지부장 및 임직원,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권인옥 회장, 김누리 경기북부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해 나눔의 뜻깊은 의미를 함께 나누었다. <사진>

NH농협은행 연천군지부는 이번 가입을 통해 성금 1억 원 기부를 약정하며 연천군 제3호 나눔명문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나눔명문기업은 1억 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5년 이내 기부를 약정한 기업이 참여하는 고액 기부 프로그램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한창기 NH농협은행 연천군지부장

은 “연천군 제3호 나눔명문기업으로 가입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기부 약정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과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덕현 군수는 “연천군 제3호 나눔명문기업으로 함께해 주신 NH농협은행 연천군지부 한창기 지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사회문제에 관심을 두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업의 참여는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어 “이번 기부 약정이 지역 내 나눔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연천군도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이웃사랑 반찬·통닭 나눔 행사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위원장 황현노)는 지난 20일 수

원화성음식문화연구회에서 ‘2026 행궁동 이웃사랑 반찬&통닭 나눔 행사’를 열

허필숙 기자 hpsooksh@hanmail.net

었다. <사진>

이날 행사에는 최영희 행궁동장과 황현노 바르게살기운동위원장을 비롯한 회원 10여 명이 참여해 반찬과 통닭을 직접 만

들었다. 준비한 음식은 행사에 참석한 조준희

양주시, ‘드론봇 페스티벌’ 안전관리계획 점검

오는 30일~내달 1일까지 열려
가남리비행장 일원에서 개최

최봉준 기자 dtoday01@gmail.com

양주시는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양주시 가남리비행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6 경기·양주·지자사 드론봇 페스티벌’을 앞두고 안전관리계획을 점검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9일 양주시 주관으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열고 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다. 회의에는 양주경찰서와 양주소방서, 전기·가스 분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대규모 관람객 방문에 대

비해 행사장 안전관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전기와 무대 등 시설물 안전, 관람객 인파 분산과 이동 동선 확보, 먹거리장터 위생 및 화재 예방, 비상 상황 대응체계 구축 등 이다.

또 안전요원 배치와 행사장 사전 통제 방안을 검토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도 점검했다.

양주시는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행사 개막 전에는 경기도와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해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안양시

중앙시장에 ‘AI순찰로봇’ 화재감지에 방법까지

이상영 기자 sy1337@naver.com



안양시가 전통시장 안전 강화를 위해 안양중앙시장에 인공지능(AI) 순찰로봇을 투입한다. <사진>

21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피지컬 AI 로봇 실증사업’에 선정돼 내달부터 안양중앙시장에서 순찰로봇 6대를 운영한다.

순찰로봇은 야간과 새벽 시간대 시장 내를 자율주행하며 방범 순찰을 수행하고 연기, 불꽃, 이상 온도 등 화재 징후를 감지한다. 소방 통로를 막는 적치물도 확인해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 실종자 발생시 AI 기반 이동형 수색 기능을 활용해 탐색 활동을 돕는다. 로봇이 수집한 정보는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와 연계해 24시간 모니터링된다. 긴급 상황 발생시 경찰과 소방당국에 즉시 전달된다.

시는 올해 말까지 현장 실증을 진행한 뒤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을 고도화해 전통시장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활용할 방침이다.

한전KPS(주) 청평양수사업소

가평군 취약계층 아동 지원 노트북 7대 기탁

임명섭 기자 82bb6116@hanmail.net

가평군은 한전KPS 청평양수사업소가 최근 군수실을 방문해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 지원을 위해 877만 8천원 상당의 노트북 7대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기탁은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된 노트북은 가평군 드림스타트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경훈 한전KPS 청평양수사업소장은 “아이들이 학습에 필요한 기기를 마련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태원 군수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주신 청평양수사업소에 감사드립니다”며 “기탁된 노트북이 아이들의 학습과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청평양수사업소는 2024년 500만원 상당의 데스크톱 컴퓨터를 후원하고 업무협

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25년에도 1,000만원 상당의 성품을 기탁하는 등 드림스타트 아동을 위한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오산시, 29일부터 ‘마을행정사’ 제도 운영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오후 2~5시까지 ‘무료 상담’

이호현 기자 hyeon8882@dtoday.co.kr

오산시는 시민들의 행정업무 관련 궁금증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처음으로 ‘마을행정사’ 제도를 운영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마을행정사는 행정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시민들에게 행정 관련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대한행정사회 오산시지회에서 추천한 행정사를 마을행정사로 위촉한다.

대면상담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1층 상담실에서 진행된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당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된다.

상담 내용은 행정기관 제출서류 작성·제출, 인허가·면허 관련 신청과 신고, 행정관계 법령과 절차 등 행정사 업무에 관한 사항이며 상담은 무료다.

서류 작성·제출 대행이나 신청·신고 대리 등 별도의 업무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금액은 마을행정사와 협의해 결정한다.

시흥시, 은계호수공원에서 ‘제3회 힙한 페스티벌’

오는 31일 개최... 국내 정상급 아티스트 총출동

박근식 기자 gunspark@hanmail.net

시흥시는 오는 31일 오후 6시 은계호수공원 야외무대에서 화려한 대중음악 축체인 ‘2026년 제3회 힙한 페스티벌’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힙한 페스티벌’은 동시대 대중음악을 선도하는 정상급 아티스트들의 역동적인 공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시흥시 대표 음악 축제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과 개성 넘치는 무대 매너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원슈타인 △기리보이 △딘 △비오 △김하은 △pH-1 등 국내 실력과 힙합·대중음악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해 열정적인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시흥시는 이번 행사를 쾌적하고 깔끔한

친환경 축제로 운영하기 위해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객석 내 취식이 제한되며 안전하고 원활한 관람을 위해 계단석 및 일부 스탠딩 구역에서의 돗자리 사용이 금지된다. 관람객들에게는 발생한 쓰레기를 스스로 가져가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할 계획이다.

공연은 별도 예매 없이 시민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다만 은계호수공원 인근 주차 구역이 협소한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 이용이 적극 권장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힙한 페스티벌이 많은 청년과 도민 그리고 시민들이 음악을 통해 젊음의 열정과 에너지를 나누는 축제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축제를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안민석 교육감

“교육격차 해소 위해 자기주도 학습센터 필요”

‘찾아가는 교육감실’ 타운홀미팅 열고
학부모와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

허필숙 기자 hpsookjsh@hanmail.net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20일 양평·여주·이천에서 ‘찾아가는 교육감실’ 타운홀미팅을 열고, 학부모들과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사진>

이날 타운홀미팅은 양평 이함캠퍼스, 여주 경기관광고등학교, 이천 중리초등학교에서 진행됐다.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학부모와 학교장, 경기도의원, 시·군의원 등이 참석했다.

안 교육감은 폰프리 스쿨, RAS 경기 문예제 교육, 교권보호, 교육장 공모제 등 민

선 6기 경기교육대전환의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지역별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세 지역에서는 교육격차 해소와 통학 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공통으로 제기됐다.

안 교육감은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습과 진로상담을 함께 지원하는 자기주도학습센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학 문제에 대해서는 파주시의 ‘파프리카’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지자체와 교육청이 ‘벽깨기’를 통해 협력하고, 안심 에듀버스를 도입해 아이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양평에서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운영 △학생 배지 및 통학 여건 개선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여주에서는 △열악한 대중교통과 통학 여건 개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교권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천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갈등 해결 △중리지구 중학교 신설 △중리지구 병설유치원 증설 등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나눴다.

한편 안 교육감은 21일 안양·과천에서 ‘찾아가는 교육감실’ 타운홀미팅을 이어가며 지역 학부모들과 경기교육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부천시, 가을철 집중호우 대비 ‘배수시설 점검’

12월 15일까지 전담반 운영해 배수 취약 구간 순찰

올해 홍수비상구 47곳 추가 설치해 누적 653곳 운영

김용기 기자 kyk797079@hanmail.net

부천시가 가을철 집중호우에 따른 도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빗물받이와 배수로 등 배수시설 관리에 나선다.

시는 오는 12월 15일까지 ‘2026년 가을철 배수시설 관리계획’을 추진하고, 낙엽과 각종 이물질로 인한 배수시설 막힘을 예방하기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난안전과와 하수하천과, 도로관리과, 구청, 각 동, 자율방재단 등이 참여하는 가을철 호우 대비 전담반(T/F)을 운영한다.

강우 예보가 있으면 가로수가 밀집한 주요 간선도로와 배수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순찰과 점검을 강화하고, 빗물받이와 배수로에 쌓인 낙엽·토사 등 이물질을 제거할 계획이다. 배수를 방해하는 불법 덮개와 주변 적치물도 정비한다.

야간이나 퇴근 시간 이후 집중호우에 대비해 현장 정비 인력을 확보하고, 기상 상

황에 따라 부서별 비상근무도 실시한다. 관계 부서와 자율방재단 등이 참여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침수 위험 정보와 현장 조치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빗물받이 상부가 낙엽 등으로 막히더라도 빗물이 우하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홍수비상구 설치도 이어가고 있다. 올해 47곳을 추가 설치해 현재까지 총 653곳에 설치를 완료했다.

시는 SNS와 블로그, 유튜브 등을 활용한 홍보도 강화한다. 빗물받이에 고무판이나 장판 등 불법 덮개를 설치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배수시설 막힘이나 도로 물고임 등 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조현주 부천시 재난안전과장은 “가을철에는 낙엽과 이물질로 빗물받이가 막히면서 도로침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배수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시민 안전 확보와 침수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주민자치회

일상 속 식물을 예술로… 보태니컬아트 작품전시회

허필숙 기자 hpsookjsh@hanmail.net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주민자치회(회장 조승업)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수원특례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보태니컬 아트’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세류2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보태니컬 아트’ 수강생들이 정성껏 완성한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로, 꽃과 식물의 섬세한 아름다움을 담은 작품

33점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사진> 조승업 주민자치회장은 “수강생들의 열정과 노력이 담긴 작품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희에 세류2동장은 “시민들에게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해 주신 주민자치회에 감사드리며, 행복과 웃음이 피어나는 즐거운 세류2동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평군의회, 대흥목장·메딩골정원 방문

농가 애로사항 청취… 정원 조성·운영 현황 점검

현장 의견 바탕으로 축산업·관광산업 지원 검토

박선영 기자 report0330@gmail.com

양평군의회는 20일 지역 축산업과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내 주요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군의원들은 먼저 대흥목장을 찾아 목장 운영 현황과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경영 안정화,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양동면에 있는 메딩골정원을 방문해 정원 조성·운영 현황을 살폈

다. 메딩골정원은 독일 철학자 니체의 사상에서 영감을 받아 조성한 대규모 인문학 정원으로, 전체 면적은 19만 8000㎡에 달한다.

군의회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축산업과 관광산업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민희 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다”며 “지역의 자연·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재 하남시장

이태현 전 하남문화재단 대표

KBS 사장 최종 후보 선정 축하

이양수 기자 ayanglee@hanmail.net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21일 이태현 전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제28대 KBS 사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된 데 대해 공식 축하 성명서를 발표하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사진>

시는 성명서를 통해 이 후보자가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했던 인연을 뜻깊게 생각한라며, 방송·콘텐츠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영방송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태현 후보자는 1994년 KBS 프로듀서(PD)로 입사해 편성정책부장과 콘텐츠사업국장 등을 거쳤다. 이후 국내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인 콘텐츠웨이브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2025년 7월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취임 당시에는 하남시가 추진하는 K-컬처 복합 콤플렉스(K-스타월드) 사업과 연계해 하남문화재단을 ‘시민과 세계를 연결하는 K-컬처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재임 기간에는 방송·콘텐츠 분야의 경험을 지역 문화예술 사업에 접목하는 데 힘썼다. 특히 2025년 10월 하남문화재단이 주최한 ‘2025 글로벌 K-POP 댄스 챌린지 in Hanam’에는 해외 K-POP 댄스 인플루언서 20팀이 참여해 하남의 주요 명소를 국내외에 알렸으며, 하



남문화예술회에서 열린 공연은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시는 K-스타월드 조성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사업을 통해 세계인이 찾아오는 K-컬처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축하 성명에서 이러한 문화도시 비전 아래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글로벌 문화콘텐츠의 가능성을 함께 모색했던 이태현 후보자와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KBS 이사회는 지난 20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사장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최종 면접과 표결을 진행한 뒤 이 후보자를 제28대 KBS 사장 임명 제청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태현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우리 시와 뜻깊은 인연을 맺은 이태현 후보자가 KBS 사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방송과 콘텐츠 분야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영방송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천시, 일동면 ‘기산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임명섭 기자 6k2bbj6116@hanmail.net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20일 일동면 기산2지구에 대한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을 마쳤다.

이번 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산2지구는 주택과 상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그동안 실제 토지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건축물의 경계 침범과 토지소유자 간 분쟁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었다.

이에 시는 국비 1억 2,600만 원을 투입해 일동면 기산리 68-6번지 일원 679필

지(164,123㎡)를 대상으로 정밀 측량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간 협의를 거쳐 새로운 경계를 확정했다. 이후 확정된 경계를 반영해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 지적공부 정리를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으로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도록 정비되면서 토지 경계에 따른 분쟁을 줄이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덕분에 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토지 경계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 이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리시의회, 농수산물공사 사장 후보자 ‘적격’ 판단

현안 해결·재정 건전성 확보 주문

전문성 보완과 책임경영 강조

김영배 기자 uj bapt@hanmail.net

구리시의회(의장 양경애)는 20일 제5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고 권봉수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시의회는 앞서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했다. 3선 시의원과 제9대 전반기 의장을 지낸 후보자의 행정 이해도와 소통·갈등

조정 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농수산물 유통과 공기업 경영 실무 경험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전문성 보완과 황산 활어도매상 유류시설 처리, 회센터 정상화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주문했다.

또한 사무직 결원 해소와 재정 건전성 확보, 온라인 유통환경 변화 대응, 시장 구성원 간 갈등 조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시의회는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구리시장에게 송부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공사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위해 견제와 감시를 이어갈 방침이다.

수원특례시 이재준 시장

“수원시가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 되겠다”

기업인·투자자 등 한자리 모여 교류하며 소통
‘제12회 수원시 중소기업인대상’ 수상자 시상

허필숙 기자 hpsookish@hanmail.net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기업 현장의 목소리, 기업인 의견에 귀 기울이며 수원시가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사진>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수원시 기업인의 날’에서 환영사를 한 이재준 시장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혁신, 기업에서 시작된다고 믿는다”며 “기업인들

과 함께 일궈낸 성과를 토대로 ‘첨단과학 연구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수원시 기업인의 날’은 기업인들이 성과를 공유하고, 교류·소통하는 행사다. 기업이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날 행사는 최지원 ㈜글로컬이엔엠 대표, 천지윤 와디즈㈜ 이사, 최동철 와디즈

임팩트㈜ 대표,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원장의 명사특강으로 시작했다. 본행사는 이재준 수원시장의 환영사와 제12회 수원시 중소기업인대상 시상, ‘기업인의 날’ 특별한 만남’으로 이어졌다.

이재준 시장은 “제12회 수원시 중소기업인대상” 수상자에게 상장과 기념패를 수여했다.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대외 경쟁력과 수원시 위상을 높인 우수 중소기업인을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종합대상 ㈜누보 김창균 대표 △경영혁신 부문 ㈜스카 김동배 대표 △기술개발 부문 퓨처메인㈜ 이선휘 대표 △수출진흥 부문 ㈜일레본전자 박지수 대표 △창업 및

벤처 부문 ㈜하이퍼놀로지 이남희 대표 △일자리창출 부문 ㈜시스템엔솔루션 성장화 대표 △노사화합 부문 희망동지협동조합 문상철 대표가 각각 선정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시·홍보·상담 부스 95개를 운영하고, 부대행사로 와디즈 전문 컨설턴트 6명이 참여한 기업 성공전략 일대일 전략컨설팅,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와 여성 기업 간 일대일 공공구매 상담회, 일대일 투자상담회 등을 진행하며 기업인들에게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할 기회를 제공했다. ‘기업인의 날’ 특별한 만남’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최동철 와디즈임팩트㈜ 대표, 강혁 ㈜리퍼에코리아 대표, 김재욱 수원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여해 기업 경영 현실과 기업 성장에 필요한 지원 등을 이야기했다.

이재준 시장은 “기업인들이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기업의 성장을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업이 성장해야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생긴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경제도시 수원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
수원시 기업인의 날 행사서 특별법 제정 홍보·서명운동 전개

허필숙 기자 hpsookish@hanmail.net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회장 조철상·이하 시민협의회)는 지난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수원시 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 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사진>

이날 시민협의회는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특별법 제정의 취지와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아울러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

통합국제공항 추진에 대한 서명 운동의 참여방법을 안내하고, 현장 서명과 함께 시민들이 일상에서도 손쉽게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온라인 서명 참여도 독려하였다.

조철상 시민협의회 회장은 “공항이전 추진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시민들의 관심도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홍보와 온라인 서명운동을 통하여 시민 참여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협의회는 다양한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화성특례시, 베트남 ‘하노이 기계전시회’ 성과

수출상담 74건·MOU 3건

이호현 기자 hyeon5962@dtoday.co.kr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2026 베트남 하노이 기계전시회(MTA Hanoi 2026)’에서 관내 기업 6개사가 참여한 단체관을 운영해 수출상담 74건과 업무협약(MOU) 체결 3건의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하노이 베트남 전시센터(VTC)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는 올해 11회째를 맞은 베트남 북부 최대 정밀 기계·제조 전시회로, 철강공구·금속가공기계·금형·측정장비·제조설비 등이 출품됐다. 시는 2022년부터 4년 연속 호치민 MTA 전시회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처음 하노이로 무대를 넓혔다. 관내 기업 6개사가 참가했으며, 시는 부스 임차와 장치,

전시품 운송, 통역 등을 지원했다.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는 현지 바이어를 사전 발굴해 상담의 집중도를 높였다.

도성진 브랜뉴머시너리 대표는 “한국 기업 협력사가 밀집한 북부의 설비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컸다”며 “시 단체관 덕분에 바이어와 사양·납기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었다. 반드시 계약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베트남은 남부와 북부의 산업 구조가 달라 지역별로 나뉘 공략해야 하는 시장”이라며 “호치민

에서 다져온 성과를 하노이로 이어가 관내 기업들이 베트남 전역으로 판로를 넓힐 수 있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에서는 현재 중동 정세에 따른 유가 급등 및 급격한 환율 변동 등으로 심화되는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전시회 지원, 시장개척단, 국내 수출상담회 개최 등 다양한 수출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다변화를 지원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GH·광고유일 공공지식산업센터
‘GH biz& 광고’ 분양사무실 열어광고중앙역 4번 출구앞
경기신보 1층에 마련…
26일부터 1대1 분양상담

허필숙 기자 hpsookish@hanmail.net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광고인도시 내에 유일한 공공지식산업센터 ‘GH 비즈앤 광고(GH biz& 광고)’의 다음 달 분양을 앞두고 실수요자 편의를 돕기 위해 분양사무실을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분양사무실은 신분당선 광고중앙역 4번 출구 인근 경기신용보증재단 건물 1층에 위치한다. 이달 26일부터 실수요기업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안내를 시작하며, 사업 개요와 입지 여건, 입주 지원시설 등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한다.

‘GH biz& 광고’는 수원특례시 영통구 이의동 1322-2 일원에 지하 3층·지상 14층, 연면적 약 3만5000㎡ 규모로 조성되며 오는 2029년 6월 준공 예정이다. GH가 시행부터 분양·임대까지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공공사업으로, 시공은 신동아건설 컨소시엄이 맡는다.

‘GH biz& 광고’는 입주 기업과 중소·스타트업업을 위한 업무공간을 비롯해 창업 초기 기업의 정착을 돕는 지원시설을 다채롭게 갖춘다. 공유오피스와 창업지원시설을



구축해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뒷받침하며, 광고역사공원과 생태하천 산책로, 광고호수공원 등과 인접해 쾌적한 업무환경도 제공된다.

임시적 장점은 탁월하다. 신분당선 광고중앙역 역세권에 자리해 판교와 강남권 접근성이 뛰어나며, 동수원IC를 통해 수도권 주요 거점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아주대학교, 경기도청, 수원컨벤션센터 등 행정·교육·마이스(MICE) 시설과도 가까워 기관 및 기업 교류에 유리한 입지를 갖췄다. 특히 광고테크노벨리와 인접해 나노·바이오 첨단기업 및 연구기관이 집적된 ‘광고 R&D 클러스터’의 인프라를 직접 연계 활용할 수 있다.

‘GH biz&’(지에이치 비즈앤)는 GH의 독자적인 공공지식산업센터 브랜드로 지난 5월 상표등록을 마치고 공사가 추진하는 지식산업센터에 전면 적용하고 있다.

분양사무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현장 방문객에게는 단지 모형 전시와 1대1 맞춤형 분양 상담을 지원하며, 대표번호(1577-8465)를 통한 유선 상담도 병행한다.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이천시민장학회에 장학금 기탁

지역인재 육성 위한 나눔 이어가

황선인 기자 hsin777@hanmail.net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이 지난 19일 이천시청에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350만 원을 (재)이천시민장학회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성수석 이천시장을 비롯해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이재복 공장장과 김지현 생산지원팀장, (재)이천시민장학회 임기배 이사장 등이 참석해 뜻깊은 나눔의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에 전달된 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

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지역 내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은 지난 1998년부터 꾸준히 장학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해 왔으며, 현재까지 누적 기탁액은 10억 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지역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고,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성수석 이천시장은 “오랜 기간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장학금이 학생들의 학업과 성장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이천시에서도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의료·요양 통합 돌봄 현장

홍보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이양수 기자 ayanglee@hanmail.net

광주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 부족으로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의료·요양 통합 돌봄 현장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일 뇌병변장애인연구회 행사와 17일 경안동민의 날 행사 등 주요 행사장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통합 돌봄 전담 직원들이 시민을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형 상담과 사업 안내를 진행했다.

특히, 상담 과정에서 돌봄 지원이 시급

한 대상자를 발견하면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즉시 연계해 신속하게 서비스 신청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의료·요양 통합 돌봄은 노인과 장애인 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일상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금까지 330여 명에게 모두 870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 “의료·요양 통합 돌봄은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익숙한 공간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핵심 복지 사업”이라며 “전담 인력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현장 홍보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 없는 광주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 주민자치회
한국1차아파트 경로당 방문

허필숙 기자 hpsookish@hanmail.net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 주민자치회(회장 주병기)는 지난 20일 자매결연을 맺은 한국1차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쌀과 화장지, 간식 등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사진>

이번 방문은 자매결연을 계기로 지역 어르신들과 꾸준히 교류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며 이웃 간 정을 나누는 지역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준비한 물품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

다. 또 경로당을 이용하며 느끼는 불편사항과 여러 의견을 들으며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주병기 매탄2동 주민자치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의 일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서로 돌보며 정을 나누는 따뜻한 마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매탄2동 주민자치회는 그동안 경로당 생활필수품 지원과 겨울철 위원들이 직접 뜬 털모자 전달, 어르신을 위한 ‘삼계탕 데이’ 행사, 웃음치료 강의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펼쳐 왔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일상 속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살필 계획이다.



의정부시

오목문화공원 공중화장실
설치 완료… 전면 개방

임명섭 기자 6k2bbj6116@hanmail.net

의정부시(시장 김원기)는 오목문화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를 완료하고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오목문화공원은 산책객과 유아 숲체험원 이용객들이 찾는 공간임에도 공중화장실이 없어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 이에 시는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

해 공중화장실을 새롭게 설치했다.

시는 화장실 개방 이후 정기적인 청소와 위생관리를 실시하고, 시설물 파손 여부와 안전관리시설의 작동 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화된 화장실 시설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박운선 자원순환과장은 “공중화장실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청결과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시설 점검과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출범

3개 분과 활동 지역 안전 환경 점검·정책 제안

김용기 기자 kyk797079@hanmail.net

강원 속초시는 지난 20일 속초여고 후문 공원 일원에서 제4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발대식을 열고 지역 안전 환경 점검과 생활 속 불편 사항 발굴에 나섰다 21일 밝혔다. <사진> ‘안심을 잇다, 속초를 뛰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발대식은 시민참여단 위촉과 안전시설 현장 점검으로 진행됐다. 제4기 시민참여단은 모두 3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가족 친화·안전 증진·여성 참여 등 3개 분과에서 활동하며 지역 안전 환경을 점검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참여단은 이어 ‘안심 RUN 속초’ 프로그램에 참여해 속초여고 후문 일대의 벽화조명과 노면표지, 바다에 안내문구나 그림을 비추는 조명시설 등을 점검했다.

현장 사진을 모바일 웹사이트에 등록하며 시설 상태와 주변 환경도 살폈다.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속초 100년 지도’도 전달받았다.

지도에는 학생들이 일상에서 느낀 안전 관련 불편 사항과 개선 의견이 담겼다. 참여단은 이를 향후 현장 점검과 생활밀착형 정책 제안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안심 RUN 속초’를 안전시설 방문 인증 챌린지로 확대해 시민들이 여성 안심 구역과 안전시설을 자연스럽게 찾고 이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병선 시장은 “시민과 청소년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모두가 안심하는 도시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시민참여단이 현장에서 찾은 개선 과제를 정책 제안으로 연결하고 더 많은 시민이 지역 안전 환경을 살피는 활동에 함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고성군, 산불방지대책본부 조기 가동 산불 예방 총력

영농부산물·쓰레기 불법소각 집중 단속 위반시 과태료 부과

김용기 기자 kyk797079@hanmail.net

강원 고성군이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조기 가동하고 산불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 군은 산불 조심 기간(11월 1일~12월 15일)을 앞두고 지난 6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산불 진화 헬기와 진화 차량 등 장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산림재난대응단을 조기 운영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산불 조심 기간에는 산림 6646ha(헥타

르·1ha는 1만㎡)와 등산로 6개 구간을 입산 통제 구역으로 지정하고 산불감시원 162명을 배치해 감시 활동을 벌인다.

이달 말에는 관계기관과 두 차례 합동 진화훈련을 실시해 초동 대응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1887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점검과 계도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또 오는 25일까지 산림 인접 지역의 영농부산물·쓰레기 불법 소각과 화기 물을 소지한 채 입산하는 행위를 집중하여 단속하고,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제19회 도지사배 미용예술경연대회 개최

기능·커트·스타일링·메이크업 등 총 10개 종목 일반·학생부문

노덕용 기자 dtoday01@gmail.com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우상호, 이하 ‘도’)가 후원하고 (사)대한미용사회 강원특별자치도지회가 주최하는 ‘제19회 강원특별자치도지사배 미용예술경연대회’가 20일 동해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박길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이정학 동해시장 등 내빈과 미용업계 관계자, 대회 참가자,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기능, 커트, 스타일링, 메이크업 등 총 10개 종목에서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술과 창의적인 감각을 바탕으로 기량을

겨루며, 미용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선보였다.

또한, 미용예술경연과 함께 헤어쇼와 미용 관련 기자재 전시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마련돼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미용인 간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 미용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올해 대회에서는 일반부 미미향 참가자와 학생부 김태민 참가자가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종목별로 일반부 7명과 학생부 10명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대회가 미용인들이 서로의 기술과 경험을 나누고, 미용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용인들이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사용후 미래차 부품에 새 생명을

정밀분해부터 재제조까지, 미래차 부품산업 지원 킷오프 회의 개최

미래차 부품 재제조·재활용 기반 마련, 자원순환·산업 경쟁력 강화

청정 자연환경과 첨단산업 조화로 지속가능한 미래차 생태계 조성

노덕용 기자 dtoday01@gmail.com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는 21일 ITS 세계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강릉에서 횡성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강원테크노파크, 한국자동차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 기업 등 관계자들이 모여, ‘완전정밀 분해 적용 친환경 미래차 부품산업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방향과 세부 실행계획’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래차 산업 전환에 대응해 사용 후 부품의 회수부터 정밀분해, 성능평가, 재제조에 이르는 자원순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지난 7월 산업통상부 공모 선정 이후 사업을 본격 추진에 앞서 참여기관 간 사업의 성공추진을 다짐하는 첫 회의자리이다.

최근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탄소발생저감과 자원안보, 공급망 안정 등의 이슈가 중요시되고 있으며,

부품의 효율적인 활용과 폐기물 저감, 핵심 자원의 회수·재활용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완전정밀분해는 부품을 세밀하게 분해해 구성 요소별 상태와 성능을 확인하고, 재사용이나 재제조가 가능한 부품을 선별하는 기술이다.

이를 활용하면 사용 후 부품의 잔존 가치를 높이고, 재제조에 필요한 자원과 에너지를 절감하는 데 도움이 있으며, 부품별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검증과 평가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 추진 체계와 기관별 역할을 공유하고, 완전정밀분해 기술 적용 방안과 친환경 미래차 부품의 재

조·재활용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와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지원 방안과 기업 참여 확대,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도 주요 과제로 다뤄진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미래차 부품의 순환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전기차 재제조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 등 기 추진 사업과의 시너지로 연결하여 전동화 핵심부품의 회수와 분해, 평가, 재제조를 연계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자원순환 효율을 높이고 청정한 미래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춘천시, 허가 못 받은 주택도 합법화 기회

오는 12월 17일 특별법 시행 … 18개월간 한시 적용

2023년 말까지 완공된 일정 규모 이하 주거용 건축물

노덕용 기자 dtoday01@gmail.com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춘천시(시장 육동한)는 오는 12월 17일부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절차가 한시적으로 마련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건축물 소유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월 16일 제정된 이 특별법은 시행일인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양성화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다.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진 건축물, 허가를 받고 건축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

물, 용도변경 절차 없이 주택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다만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660㎡ 이하가 대상이다. 단독주택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연면적 330㎡ 이하까지 확대할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허가받았지만 실제 주택으로 사용해 온 건축물도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주택 유형별 면적 기준을 충족하면 양성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대상 건축물이라고 해서 모두 양성

화되는 것은 아니다. 도로·구조안전·위생·방화·일조권·도시계획 등에 현저한 지장이 없어야 하며 건축위원회 심의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등 일부 지역의 건축물은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사를 통해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등을 준비해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고 기간과 제출 서식 등은 시행령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시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이 한시적인 양성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사전 홍보에 나선다. 이달부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안내 포스터를 배부하고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적용 대상과 주요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

양양군, 낙산항·동산항 준설 추진 어항 기능 회복 기대

김용기 기자 kyk797079@hanmail.net

강원 양양군이 토사 퇴적으로 기능이 저하된 어항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조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하반기 어항 준설사업을 추진한다. <사진>

군은 올해 말까지 사업비 3억3210만원을 들여 낙산항과 동산항 등 2개 어항에서 퇴적 모래 1만458㎥를 파낼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어항별로는 낙산항 4476㎥에 1억7165만5000원, 동산항 5982㎥에 1억6045만원을 투입한다.

최근 기후변화와 이상기후에 따른 너울성 파도 등으로 항 내 모래 퇴적이 이어지면서 어선의 안전한 입출항과 정박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어항 기능 저하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군은 펌프선을 이용해 항 내에 쌓인 모래를 제거하고 적정 수심을 확보해 어선 좌초 등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방침이다. 어획물 양육과 어구 운반 등 어업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 어업인의 불편도 해소할 계획이다. 준설한 모래는 침식이 진행 중인 인근 해수욕장에 공급한다. 어항 기능을 회복하는 동시에 해변의 모래 유실을 보완해 연간 침식 피해를 완화한다는 취지다.

군은 이번 사업이 낙산항과 동산항 주변의 해안 경관을 유지하고 해양관광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올해 상반기에도 사업비 4억5000만원을 투입해 후진항·인구항·오산항 등 어촌정주어항 3곳과 지방 어항인 기사문항 등 모두 4개 어항의 퇴적 모래 준설을 추진했다.

원주시, 소금산 그랜드밸리 공실 활용·관광객 유치 방안 모색

미디어아트센터·생태체험관 둘러보고 공실 공간 활용 방안 살펴



노덕용 기자 dtoday01@gmail.com

강원 원주시가 소금산 그랜드밸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사진>

21일 원주시에 따르면 구자열 시장은 전날 소금산 그랜드밸리를 방문해 주요 시설 운영 상황을 살피고 간현관광지 상가변영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했다.

구 시장은 소금산 그랜드밸리 통합센터에 있는 소금산 미디어아트센터와 내수면 생태체험관을 둘러보며 공실 공간 활용 방안을 점검했다.

임시 운영 중인 로컬푸드 직매장에는 관광객 방문을 유도해 지역 소득 증대로 이

어질 수 있도록 주문했다. 현장 관계자들과는 관광시설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과제도 논의했다.

이어 김중수 간현관광지 상가변영회장을 비롯한 회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관광지 운영과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관광객 유입이 지역 상권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행환경 개선과 비수기 관광객 유치 방안 등을 제시했다.

시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살필 계획이다.

구자열 시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주요 사업장의 운영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시민과 현장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소금산 그랜드밸리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군, 국화 향기에 공연의 즐거움까지 2026 대한민국 국향대전 볼거리 ‘풍성’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먹거리 가득...오감 만족 축제
23일부터 11월 8일까지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서 진행

허종만 기자 hjm22136001@hanmail.net

함평군이 23일 '2026 대한민국 국향대전' 개막을 앞두고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먹거리 등 풍성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관람객을 맞이한다.

군은 21일 올가를 관람객의 오감을 만족 시킬 '2026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23일부터 11월 8일까지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남도 대표 가을 축제인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올해 '신화의 국화동산'을 주제로 국화 전시와 함께 공연·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볼거리, 즐길거리를 준비하고 관람객을 맞이한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23일 오후 6시 함평엑스포공원 중앙광장 주무대에서 열린다. 지난해 경연대회 입상팀인 '일렉트릭'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막 선언과 세리머니가 진행된다. 이어지는 축하공

연에서는 가수 성리가 무대에 올라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예정이다.

축제 기간에는 '국향 가을 음악회'를 비롯해 다양한 초대가수 공연이 펼쳐진다. △24일 이윤 △31일 감기태 △11월 1일 이영하밴드와 더보컬(KCM·고유진·더원) 등이 무대에 올라 가을날을 수놓을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한다. 특히 폐막일인 11월 8일에는 가수 나태주의 공연이 17일간 이어진 국향대전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축제장 곳곳에서는 흥겨운 음악과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브라스밴드 거리공연'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한다. 내달 3일에는 'KBS 전국노래자랑 함

평군 편'이 개최돼 흥과 열기를 더한다.

군민이 참여하는 '전통 뭇놀이 한마당'과 끼와 재능을 뽐낼 수 있는 '국향 끼스타를 찾아라'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돼 축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축제 기간 '국화랜드 미로 탈출 체험'을 비롯해 △국화 여신 옷 입기 △국화 공예품 만들기 △습지 정가장 전기 카트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축제장에는 함평에서 생산한 농특산물 판매 부스를 비롯한 다양한 먹거리 판매 공간도 마련돼 또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올해 국향대전은 국화의 아름다움과 함께 다양한 공연과 체험, 지역 농특산물과 먹거리까지 풍성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올가를 함평에서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가을날의 정취를 느끼시며 즐거움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승규 기자 ck112612@naver.com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들 기업 등은 라오스 현지 마을과 산업시설의 전력 환경에 적합한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을 개발하고 현지에서 실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외사업 수주와 시장 진출에 필요한 기술 실적과 현지 사업 경험을 확보하고 향후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나주시와 사안나켓주는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마이크로그리드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기술교류와 공동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산업단지과 특별경제구역(SEZ)을 활용한 기업 진출과 투자 확대를 지원한다.

윤병대 나주시장은 "지난 6월 국제공동연구개발 사업 선정으로 시작된 지역 에너지기업의 해외 진출 노력이 기술 실증과 사업화 단계로 나아가게 됐다"며 "라오스 현지에서 확보한 기술 실적과 협력 네트워크가 실질적인 투자와 해외사업 수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나주 에너지기업들, 라오스서 연구개발 착수



착수보고회 및 비즈니스 포럼 개최

나주시역 에너지기업들이 라오스에서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에 착수했다.<사진> 20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시와 시 소재

에너지기업인 그린이엔에스, 다운그리드를 비롯해 현대솔라텍,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성균관대학교 등은 최근 라오스 비엔

티안에서 '한-라오스 에너지국제공동 연구개발(R&D) 착수보고회 및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어 나주시와 이들 기업 등은 사안나켓주와 에너지산업 및 경제협력에 관한 업무

담양군, 창평 전통음식축제·노인의 날 경로잔치

23~24일 창흥학당 일원서 이틀간 개최
창평 전통 먹거리 선보이고 어르신 공경

한상호 기자 hsh5969@naver.com

담양 창평의 전통음식과 고유한 음식문화를 즐기고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가 열린다.

창평면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창흥학당 일원에서 '제12회 창평전통음식축제'와 '제30회 노인의 날 경로잔치'를 함께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창평의 음식문화를 널리 알리고 주민과 관광객이 한데 어울리는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서는 창평의 전통과 특색을 담은 음식과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보여 방문객들에게 지역 고유의 매력을 전할 예정이다. 올해는 노인의 날 경로잔치도

함께 열려 의미를 더한다. 지역 발전에 힘써 온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며 경로효친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창평면은 이번 행사가 지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주민 간 화합을 다지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원휘 창평면 기관·사회단체협의회장은 "창평만의 맛과 멋을 널리 알리고 주민과 방문객이 서로 정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군, 주민자치 박람회서 우수사례상·민간표창 성과

죽곡면 주민자치회 우수상·석곡면 이진규 회장 민간표창
체험·전시 부스 운영... 주민자치 활동과 지역 ㅁ 사례 소개

안태봉 기자 atb79788@naver.com

곡성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우수사례상과 민간표창을 받으며 지역 주민자치 활동의 성과를 알렸다. 곡성군 죽곡면 주민자치회가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자치 박람회 우수사례 발표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왼쪽부터 박철주 전남광주특별시 시민주권

곡성군은 지난 15~16일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박람회에 참가해 체험·전시 부스를 운영하고 군의 주민자치 활동을 소개했다.

박람회는 전남·광주 지역 주민자치 사례를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을 넓히기 위

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 곡성군 죽곡면 주민자치회는 10개 시·군이 참여한 우수사례 발표에서 '한 끼로 살피는 먹거리 기반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 사례'로 우수상을 받았다.

석곡면 주민자치회 이진규 회장은 주민자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민간표창을 수상했다.

곡성군은 현재 11개 읍·면 가운데 석곡면과 죽곡면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다.

군은 박람회 현장에서 주민자치 활동을 소개하는 한편, 주민들이 지역 정책과 주민자치 활성화 방향을 접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구례군, '섬진강수달생태공원 환경생태 탐험대' 성황

일간 다채로운 놀이형 생태 프로그램 운영 인기몰이
무동력 나무놀이터와 정크워크숍으로 탄소중립 실천
천연기념물 수달 생태 관람 통해 생명존중 가치 공유



육미석 기자 misub@gmail.com

구례군(군수 장길선)은 관내 대표 자연 관광지인 섬진강수달생태공원에서 4일 동안 펼쳐진 특별 기획 체험 행사 '지구별 환경생태 탐험대'가 총 3295명의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사진>

이번 행사는 미래 세대인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놀이와 감각적 체험을 통해 환경 보전의 중요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체득하도록 기획했다.

구례군은 섬진강수달생태공원에서 특별 기획행사 '지구별 환경생태 탐험대'를 운영해 3295명의 방문객을 맞이했다. 사진=구례군 제공

단순 전시 관람 방식에서 탈피해 현장을 찾은 가족들이 온몸으로 생태계를 경험하는 실감형 콘텐츠를 집중 배치해 관람객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이

끌어냈다. 체험장 일원에는 탄소중립 친환경 나무놀이터를 필두로 그림책과 함께하는 책놀이, 재활용 종이 상자를 이용한 박스놀이터, 숲속 캠핑·뱃놀이 등이 유기적으로 꾸며졌다.

아울러 폐품을 창의적 예술품으로 되살리는 업사이클링 악기 만들기 프로그램과 동물 생태관람 체험 교실 등 높이이에 맞춘 놀이 학습 시설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특히 전기를 쓰지 않고 플라스틱을 배제한 무동력 목재놀이터와 버려지는 자원을 예술로 환원하는 정크워크숍은 아이들에게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직관적으로 일깨웠다.

다양한 동물들의 고유한 습성과 서식 환경을 가까이서 관찰하는 생태 탐구 코스는 생물 다양성과 생명 존중의 미덕을 전하며 어린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목포시,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이용 활성화

‘착(CHAK) 서포터즈’ 운영... 모바일 가맹점 등록 지원·이용
미등록 가맹점 직접 방문해 상품권 안내·신청서류 접수 지원

박광일 기자 pkll1313@naver.com

목포시(시장 강성휘)는 목포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조기에 1000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이에 맞춰 가맹점을 늘리고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시는 모바일(QR) 목포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고 가맹점주와 시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해 '목포시 지역사랑상품권 착(CHAK) 서포터즈'를 10월 19일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이를 위해 서포터즈 26명을 대상으로 착(CHAK) 앱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모바일 결제 및 상품권 이용 안내, 가맹점 방문 요령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을 마친 서포터즈는 관내 사업장을 방문해 모바일 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QR결제 시스템 도입, 앱 사용법 등을 안내한

다. 특히 모바일 결제에 익숙하지 않은 가맹점주에게 현장 중심의 안내를 제공해 등록과 이용을 돕고 시민들의 상품권 이용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인력이 미등록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목포사랑상품권의 혜택과 가맹점 등록 절차를 안내하고 신청서류 접수를 지원하고 있다.

상품권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서류 제출의 번거로움으로 등록을 미루는 사업장이 없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해 사용처를 넓혀갈 방침이다.

강성휘 시장은 "목포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조기에 1,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등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상품권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공모 선정

농산물 가공시설 개선·설비확충
반가공 원료 넘어 완제품 생산

이윤행 기자 leeyh85@hanmail.net

무안군이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특화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20억원을 확보했다.

무안군은 확보한 사업비를 투입해 농산물 가공시설을 개선하고 가공 설비와 장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맞춘 생산환경도 구축한다.

사업 대상인 무안군융복합센터는 군고구마 페이스트 생산시설과 개발 급속냉동

(IQF) 설비를 갖추고 있다. 고구마 껍질 제거와 심분리, 포장 등 주요 공정을 자동화해 대량 가공이 가능하다.

센터는 지역에서 생산된 고구마와 등의 품을 페이스트로 가공해 제과·제빵과 죽·선식, 라면 등 식품·음료 원료로 공급하고 있다.

생산된 페이스트는 식품기업을 거쳐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제품 원료로도 사용되고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공급처와 판로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반가공 원료 중심의 생산에서 완제품까지 생산할 수 있도록 가공기반을 확충한다.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지역 농산물의 가공과 상품화도 늘릴 방침이다.

보성군, 2025 지적재조사 대상 7개 지구 경계 확정 ‘초읽기’
1838필지 경계결정 마무리
소유자 60일 이의신청 기간

안구일 기자 si7757@naver.com

보성군은 21일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인 조성·노동·회천면 일대 7개 지구, 1838필지의 경계결정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군은 노동면 금호1·2지구, 조성면 우천1·2지구, 회천면 군농1지구 등 5개 지구의 경계결정을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7월 경계결정을 마친 조성면 귀산1지구와 노동면 거석1지구를 포함해 2025년 사업 대상 7개 지구 전체의 경계결정을 완료했다.

군은 이번엔 경계가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개별 발송했다.

결정된 경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성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된 경계가 확정되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관련 절차를 거쳐 경계를 확정한다.

경계가 확정되면 군은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하고 등기 정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토지 면적이 증감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등을 거쳐 조정금을 산정하고 징수·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

인에게는 통지서에 기재된 경계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군민의 재산권이 안정적으로 보호되도록 후속 절차를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해 이웃 간 경계분쟁을 줄이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농심천심국민참여단

나의 재능 나의 방문, 농촌의 활력이 되다



내가 잘하는 일을 보태고, 농촌의 하루를 함께하고,
그곳에서 발견한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일
서로 다른 참여가 모여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더합니다

농심천심국민참여단에 함께해주세요



국민참여단가입